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고독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

2012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이 정 희

고독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경험

지도교수 한 승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4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평생교육전공

이 정 희

이정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6월

위원장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인)

위원 _____ (인)

국문 초록

인간의 삶에 편재되어 있는 고독의 맥락은, 사회적인 관계망과 그 영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맥락인 동시에 주체가 익숙하게 영위하고 있던 일상으로부터도 떨어져있는 맥락이다. 주체가 자신의 홀로 있음으로 인해 파생되는 외로움의 정서를 다루어내고, 자신이 홀로 있는 상태임을 자각하는 지점에서, 학습된 자기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사이의 자동화된 관계는 멈추게 된다. 이 지점에서야말로 비로소 주체가 자기 자신을 성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고독의 맥락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바를 학습의 관점에서 드러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연구를 시작하였다. 고독의 맥락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에 발현되고 그 발현에 따라 어떠한 조건을 형성해 가는가, 고독의 맥락이 형성해낸 조건에서 이들의 내면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과정이 경험되는가, 마지막으로 고독의 맥락이 인간의 삶과 생애 전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의 세 질문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적어도 5년 이상 스스로의 의지로 정기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져온 총 일곱 명의 제보자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고, 질적연구의 틀에서 해석하였다.

고독의 맥락에서 제보자들이 경험한 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일상의 맥락에서 고독의 맥락으로의 맥락적 전환과 그에 따른 새로운 조건과의 만남, 고독의 맥락 안에서의 멈춤과 쏟아냄, 성찰과 재구성이 라는 학습 양식의 경험, 고독의 맥락과 일상의 맥락이 통합되어감에 따라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한 학습의 양식의 체화가 그것이다.

제보자들은 일상에서 고독으로의 맥락적 전환을 크게 두 계기를 통하여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이들이 이전에 고독의 맥락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계기를 만나고서야 고독의 맥락을 주목하고 경험하게 되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관계에의 실망, 일에 대한 좌절, 삶의 과부하와 같은 극적인 경험과 고독의 맥락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사람 혹은

그러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적인 틀과의 조우하였던 경험이 그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경험한 고독의 맥락은, 이들에게 세 가지 조건이 작동하는 맥락이었다. 첫째는, 일상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상황적인 자극들의 일시 정지였다. 둘째는, 철저히 위기(爲己)적인, 오직 자신을 위한 목표 지향이었다. 셋째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주제에 대한 물음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제보자들은 인식의 차원과 영성의 차원, 감정의 차원에서 고독의 맥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세 차원 모두에서 제보자들이 겪은 과정이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구조의 폐기와 새로운 구조의 형성의 과정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우선, 의식의 차원에서 영킨 경험의 구조를 쏟아내는 동안, 제보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각과 본질을 묻는 물음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는 성찰과 재구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재구성의 단계는, 상황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허락하는 새로운 경험의 구조였다. 둘째로 영성의 차원에서는, 평가와 판단을 중지한 높은 자아와 절대자, 그리고 잠잠해진 내면이 중요하였다. 잠잠해진 내면에 때때로 떠오르는 ‘영감’은 제보자들이 기존 경험의 구조를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데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었다. 셋째로, 감정의 차원은 앞선 두 차원의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도 성찰의 대상이 되었다. 해묵은 정서적 문제들은 그 이면에 가라앉아 있는 경험의 구조와의 관계가 새로 쓰여질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었다.

고독의 맥락적 조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학습의 양식, 멈추어 쏟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찰과 재구조화는 제보자들의 일상과 균형을 이루며 제보자들의 삶에 체화되어갔다. 고독의 맥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일부 제보자들은 자신의 일상을 고독의 눈으로 바라보는 삶의 양식을 체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합은 이들의 매 순간의 삶에 대해 깨어서 반응하게 하였고, 풍성한 학습의 장면으로 바꾸어 놓았다.

고독의 맥락에서의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경험의 제보에 터한 본 연구는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자기 자신과 본연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하는 학습의 장으로써의 가능성을 드러내었고, 새로운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폐기 학습의 한 가지 가능한 형태를 고독의 맥락을 통해 조망하여 내었으며, 자신의 인생의 모든 장면들을 학습의 소재로 바꿀 수 있는 평생학습의 능력의 존재와 이러한 능력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는 것이 가능함을 드러낸 데에 의의가 있다.

주요어 : 고독, 홀로 있음, 평생학습, 폐기학습, 성찰, 학습력

학 번 : 2010-21440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4
3. 연구방법	5
II. 선행연구	11
1.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고독 연구	11
1)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11
2)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13
3) 철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14
4)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16
2. 고독과 학습에 관한 논의	17
1) 고독과 내적 성장	17
2) 고독과 영성의 성장	18
3) 고독과 창조성의 성장	20
3. 소결	21
III. 맥락의 전환 : 함께 있음에서 홀로 있음으로	23
1. 맥락 전환의 계기	23
1) 삶의 극적인 계기	23
2) 고독의 모델과의 조우	25
2. 전환된 맥락으로서의 고독의 조건	30
1) 끊임없는 상황적 자극의 일시 정지	31
2) 위기(爲己)적 목표	33

3) 정답이 없는 주제	35
3. 소결	39
IV. 성찰과 재구성 : 경험의 재판 짜기	41
1. 인식의 차원	41
1) 영킨 경험들 풀어내기 : “정직하게” 쏟아내기	44
2) 성찰과 재구성 1 : 다양한 입장에 서서 “진단” 하기	54
3) 성찰과 재구성 2 : “어떤 게 본질인지” 를 물으며 가지치기 ..	74
4) 현 단계에서의 해결 : “그게 이제 해결이 돼 가는 단계...”	94
2. 영성의 차원	51
1) 영감을 통한 성찰과 새로운 이해	52
2) 무의식으로의 성찰의 범위 확장	55
3) 영적 감수성의 성장	58
3. 감정의 차원	60
1) 인식적 차원과 영적 차원의 성찰과 재구성의 과정을 이끄는 감정변화 ..	60
2) 성찰과 재구성을 통한 정서적 치유	63
3) “점점 더 직설적” 인 방향으로의 정서적 감수성의 성장	56
4. 소결	67
V. 체화 : 일상을 고독으로 살아내기	69
1. 일상과 고독 사이에서	69
1) 일상과 고독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69
2) 일상과 고독 사이를 넘나드는 영리한 주체	72
2. 일상과 고독의 통합	75
1) 일상과 고독이 통합되는 과정	75
2) 일상 속의 고독	77
3. 소결	82

VI. 요약 및 결론	84
1. 요약	84
2. 결론	87
1) 학습 연구에 있어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의의	87
2) 고독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학습의 양식, 폐기학습	88
3) 매 순간 학습자의 자세로 사는 평생 학습형 인간	89
4)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91
 참고문헌	 93
 Abstract	 97

I. 서론

1. 문제제기

고독은 모든 인간의 삶의 구석구석에 편재되어있다. “세상에 고독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논문의 주제에 대해들은 이들에게서 한결같이 돌아오던 반응이다.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임을 부인하기가 어려운 만큼이나, 그의 반대 면과도 같은 고독의 존재 또한 부인하기가 어렵다. 인간은 사회적이기 때문에 고독을 지각하고 느끼며, 때로 고독을 추구한다. 인간관계의 홍수와도 같은 오늘날만큼 관계성의 반대 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도 없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덕분에 손쉬워진 만큼 필요이상으로 연락이 늘었으며, 이러한 필요이상의 사회관계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공간을 앗아갔다. Larson은 사회 규범에 대해 이야기한 Goffman의 논의를 들어 사회성과 고독의 공존을 잘 설명한 바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은 좋아할만한 사회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사회적인 부담을 느끼게 되는데, 고독이라는 것은 이로부터 자유로운 ‘무대의 뒤’ 와도 같다는 것이다(Larson, R.,1990). 사회적 규범의 영향력은 실재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새도 없을 만큼 끊임없이 다양한 메시지들에 노출된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독백을 하는 것처럼 보이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던지 간에 ‘무대 위’ 에 있다.

‘고독’ 은 한자로 그 뜻을 풀어보면, ‘외로울 고’ 에 ‘홀로 독’ 을 써,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뜻한다. 다시 말해, 일반적인 의미로의 고독은 홀로 있는 상태뿐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감정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때의 홀로 있음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비단 물리적으로 사람들과 떨어져있음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크든 작든, 사람들로 구

성되어 있는 사회의 즉각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떨어져있음을 의미한다. 외로움의 감정은 바로 자신의 홀로 있음을 자각하는 데에 따른 1차적인 정서적 반응이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둘의 부정적인 관계에 주목하여왔다. 이들에게 있어 고독의 상태는 사회에 부적응하는, 처치가 필요한 상태로 여겨졌다. 그러나 고독의 건설적인 측면을 주목하는 입장에서는, 홀로 있음에 따르는 1차적 정서 반응을 극복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얻어진 상태를 고독으로 보려고 시도한다(장경근, 2009). 이러한 시도는 고독의 구성요소인 홀로 있음과 외로움을 모두 인정하되, 1차적 반응인 외로움이 극복되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고독을 외로움의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게 한다. 아울러, 외로움이 극복된 고독의 긍정적인 역할을 부각시킨다.

일부 연구와 저작들은 고독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을 밝히고 있다. 자아의 치유 (Suedfeld, 1974, 1982; Larson, 1990에서 재인용),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부담의 경감 (Larson & Lee, 1996), 절대자와의 합치 (Buchholz, 1998), 창조성의 중요한 통로 (Buchholz, 1998) 등의 이러한 영향들은 고독이라는 맥락에서 일어난 어떠한 과정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가 단순히 사회적 관계와 관계의 영향력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있는 맥락적 배경에서만 초래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명시적으로 연구물들에서 언급되지는 않았더라도, 사회적 관계로부터의 거리두기에 더하여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거리두기를 포함하고 있는 맥락이라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하다. 익숙했던 것들로부터 한 발 물러나 주체가 자신의 홀로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외로움이라는 정서적 반응을 긍정적으로 다루어낸 맥락으로서의 고독은, 일상의 맥락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장이다. 고독의 맥락에서 관계와 그 영향력의 축소된 자리는 나의 내면과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채우게 된다. 이는 주변 세계에 빠져 자신의 목소리를 넘겨듣던 현존재(김동규, 2005)가 비로소 진정한 자기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맥락적 배경이며,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쉽게 도달하기 어려운 깊이에 가 닿게 되는 도상이다.

인간은 태어남과 동시에 끝없는 경험의 경주에 노출되며, 이를 통해 자신의 경험을 성장시켜나가는 학습활동(한승희, 2005:139) 또한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학습활동은 끝없는 경험의 경주와의 사이에서 자동화되어 일정 부분 폐쇄성을 띠는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둘 사이의 자동화된 관계가 끊어지는 자리, 다시 말해 삶의 고통이나 균열과 같은 어떠한 계기를 만나는 인생의 지점에서야 비로소 인간은 지금 현재의 경험 가까이에 붙박혀 있는 학습 너머의 것, 실존, 진리, 본질과 같은 것들이 밀려나옴을 느끼게 된다(양은아, 2010:169). 고독의 맥락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새로운 경험과 이미 학습된 패턴 사이의 자동화된 관계가 재고되고, 그 너머의 것에 대한 향수가 실현될 수 있는 장이다. 사회적인 관계와 일상의 흐름의 홍수 속에서 재고되기 어려웠던 자기 자신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비로소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사회학, 심리학과 철학의 영역에서 연구되어온 고독의 맥락을 학습의 관점에서 주목하여보고자 한다. 이들 학문에서 이루어졌던 논의들 중에서는 부분적으로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학습의 가능성을 보여준 연구들도 있었으나, 이들 학문이 터한 전제가 다름으로 인해 학습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반면, 고독의 맥락은 인간의 학습에 있어서 독특한 조건을 가진 장으로써, 실제로 사람들이 그 맥락 안에서 경험하는 바를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인학습의 한 측면과 학습에 있어 중요한 한 능력인 성찰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함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피정이나 명상을 비롯하여 의도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5년 이상 경험해온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 경험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면담을 사용한 질적연구의 틀에서 진행되었다.

2.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독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성인들의 경험을 학습의 관점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쉬는 시간이나 홀로 남겨진 시간으로 여겨져 왔던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학습의 조건으로써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이러한 조건이 빚어내는 학습의 양식과 이러한 학습의 양식이 투영된 삶의 양식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은 궁극적으로 성인들이 자신의 삶에 애착과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현재의 나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구성해 내어가는지를 이해하고자 함이며, 이를 통해 일생 동안 계속해서 새로운 나로의 성장 가능성을 여는, 개인 차원에서의 폐기학습 또한 조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고독’의 맥락은 어떠한 조건으로 구성되는가.

고독은 일상의 맥락과 구분되는 하나의 맥락이다. 따라서 고독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맥락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본 질문은 특정 계기를 통한 맥락적 전환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고독의 맥락이, 이를 경험하는 이들에게 있어 어떠한 조건을 가진 맥락으로 경험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고독의 맥락은 경험하는 이들 각각의 삶의 배경에 따라 동일하게 의미화되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이 일상으로부터 고독을 구분하여낼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이며 공통적인 조건이 존재할 것이다. 고독의 맥락을 구성해내는 핵심적인 조건들은 이들이 해당 맥락에서 경험하는 과정의 맥락적인 배경이 된다.

2) ‘고독’의 맥락에서 기존의 경험의 구조들은 어떻게 해체되고 재해석되며, 재구성되는가.

연구 질문 1에서 드러낸 고독의 맥락적 조건에 터하여 발생하는 내적인 과정을 드러내고자 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눈으로 관찰되기 어려운 내적인 과정 중에서도 특별히 고독의 맥락 이전의 경험들에 관한 것으로, 독특한 맥락적인 조건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내적인 과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드러내려는 것이다. 고독의 맥락이 가진 조건 때문에 이 맥락에서만 독특하게 보이는 내면의 과정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은, 이러한 과정으로 형성되는 독특한 학습의 양상을 드러내는 데에 기반이 된다.

3) ‘고독’의 맥락에서의 기존 경험 재구성 과정은 삶 전반과 전 인생의 차원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고독의 맥락은 인간의 삶 전체와 전 인생이라는 지평의 한 부분이다. 이 질문은, 이러한 고독의 맥락이 횡으로 주체의 다른 삶의 맥락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지, 또한 종으로 주체의 일생이라는 맥락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밝히고자 하려는 것이다.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주체는 전 생애라는 맥락을 두고 자신의 경험의 변화를 통합하여 간다(한승희, 2005).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목적으로 끊임없이 경험들을 의미화하고 통합하게 된다. 이러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주체는 어떻게 ‘고독’이라는 맥락을 의미화하고 활용하는지 탐구하여 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고독’을 학습의 맥락으로 재조명하려는 연구이다. 즉, 사람들이 일상의 맥락에서 벗어나 홀로 있기를 선택할 때의 학습의 양상을 탐구하려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개념인 ‘고독’에서의 경험은, 경험하는 이 이외에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 경

힘을 알 수 없는 개인성을 땀과 동시에, 그 삶이 터한 맥락적 배경이 복잡하게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인 동시에 복잡한 맥락의 실재는 질적 연구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 적합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패러다임으로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을 선택한다.

질적 연구란 “인간의 세계가 주관적으로 의도된 의미의 세계이며 삶의 주체자인 행위자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는 인간 행위를 서술할 수 없다”는 생각에 근거하여 실제로 경험을 한 주체의 내부적 시각을 통하여 진행하는 연구이다(박성희, 2004). 따라서 주관적 경험을 연구대상으로 삼는 본 연구에는 주체의 내부적 시각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질적 연구의 패러다임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일상의 맥락과 차별화 되는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학습적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고독은 우선 사회적 관계의 즉각적인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맥락이고, 동시에 자신의 일상이라는 맥락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맥락이며, 주체가 자기 자신의 홀로 있는 상태를 자각하는 맥락이다. 이는 매우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단순히 어떠한 집단을 선택하는 것이 이들의 고독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주변의 소개를 통하여 1차적으로 제보자와 접촉한 후, 피정이나 템플스테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고립되어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서, 현재 정기적으로 홀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있고, 이러한 습관이 적어도 5년 이상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총 7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1~2회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제보자들 중 여자가 셋, 남자가 넷으로 비교적 균등하게 성비를 맞추었다. 연령은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성직자 한 명과, 수양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한 명의 제보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반직에 근무하고 있다.

제보자 이름(가명)	성별	연령	면담 일자	고독의 맥락에서의 주된 활동
양희진	여	40대 후반	2012 2 23, 2012 4 27	일과 삶에서 받게 된 중압감이 홀로 있는 시간을 따로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됨. 수많은 성공회 피정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현재는 시간이 허락할 때는 피정을, 평소에는 요가를 병행한 매일 아침의 기도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일상을 살아가면서 매순간의 기도를 실천하고 있음.
한민영	여	40대 중후반	2012 3 6, 2012 4 18	일에서의 실망감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 홀로 잠잠히 보내는 시간을 찾게 되었던 계기가 됨. 초교파, 개신교 피정의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음. 신념체계에 관련된 마음수련 프로그램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는 코칭하는 일을 하고 있음. 수련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를 매일의 연습으로 실천하고 있음.
고준희	여	30대 초반	2012 2 13, 2012 5 17	고등학교 시절 기독교 전통의 경건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홀로 따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게 된 계기. 성공회 피정 2회 경험. 지금 현재는 때때로 풀어야 할 생각의 지점이 생길 때마다 방문을 잠그고 생각이 풀릴 때까지 적거나, 그 생각을 들고 산책을 함.
김상호	남	50대 초반	2012 4 4	믿었던 동료들과의 관계가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것에 받은 깊은 실망감이 피정을 시작한 계기가 됨. 성공회 피정의 경험을 다수 가지고 있음. 지금 현재는 때때로의 피정과 더불어 매일 아침의 절기도 (절을 하며 하는 기도)와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 저녁 시간의 산책, 음악듣기, 책 보기, 하루를 돌아보기의 시간이 하루의 일과로 자리 잡고 있음.
이민상	남	30대 초반	2012 4 4, 2012 5 1	군대에서 만난 후임을 계기로 홀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 개신교 피정의 경험이 있음. 토요일 오전 시간을 홀로 보내는 시간으로 떼어 놓고 있으며, 이 시간을 보내는 자신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음. 집 근처의 산에 뛰어 올라가는 시간 또한 자기 자신에게 할애하는 시간으로 의미화하고 있음.
박동희	남	30대 중반	2012 4 28	대학에 와서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 이후 기독교를 많이 버리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있음. 천주교와 성공회 피정의 경험이 있음. 지금 현재는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에 주로 홀로 있으면서 명상과 독서, 음악 듣기로 시간을 보냄.
김종훈	남	20대 후반	2012 5 21	사춘기 이후 중학생 때부터 일부러 산책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짐. 템플 스테이의 경험을 가지고 있음. 지금 현재는 답답함이 느껴질 때마다 요가나 명상을 통한 계속 올라오는 생각과 흘러보내기, 근처의 산을 뛰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간 동안의 생각, 혼자 여행을 가는 동안 밤에 차 안에서 연락을 단절하고 시간 보내기, 1년에 한두 번 방향을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세우는 글쓰기 등의 방법으로 홀로 있는 시간을 보냄.

3) 자료수집 및 분석 방법

가. 자료수집 방법

자료 수집은 개별면담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이는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특성에 기인한다. 우선 연구의 맥락적 전제조건인 고독의 맥락은 참여관찰이 불가능한 맥락이었는데, 이는 연구자가 참여하는 순간 이미 고독의 맥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일 뿐 아니라, 이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전반의 배경이 되는 제보자 개인의 역사는 이미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증언을 통하지 않고 알아내기가 불가능하였다. 또한 고독의 맥락은 그 단발성으로 인하여 똑같이 재연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면담은 연구자가 볼 수 없는 행위자 자신의 설명을 얻을 수 있는(곽영순, 2009) 방법으로, 어떠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개별 소개로 제보자를 표집한 본 연구에 적합한 자료수집 방법이었다.

모든 제보자와 함께한 1차 면담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반드시 연구에 대한 소개와 제보자의 권리를 동의서를 통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안내하였다. 동의서는 제보자와 연구자가 한 자리에서 작성하여 한 부씩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연구자와 제보자 사이, 그리고 제보자와 연구주제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였다. 면담은 회당 70-100분 정도로 이루어졌다.

1차 면담 시에는 “구술자 개인의 경험을 그의 시각으로 재구성하게 해주는(박성희, 2004)” 내러티브 면담을 통하여 제보자들의 경험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홀로 있는 시간에 주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언제쯤부터 홀로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게 되셨나요?”, “그 계기가 있나요?” 와 같이, 고독의 맥락 전반에 걸친 면담자의 경험이 최대한 있는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질문하고, 제보자들이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면담의 분위기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노력하였는데, 이는 면담은 면담자와 응답자의 “상호작용적 만남”이며, 이들은 면담의 텍스트를 함께 구성해내(Fontana & Frey, 2005)게 되므로, 이 과정에서 면담자의 역할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1차 면담이 포괄적인 질문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지점들이 발견되었다. 홀로 있을 때 주로 하는 활동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과, 1차 면담 시 이러한 활동을 설명하면서 사용하였던 추상적인 어휘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더 들을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적인 한계로 모든 체보자를 대상으로 2차 인터뷰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으며, 특별히 2차 면담이 필요하였던 양희진, 한민영, 고준희, 이민상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을 실시하였다. 2차 면담을 통해 이들이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며 사용했던 어휘들 이면에 감추어져있던 이들의 생각들 뿐 아니라, 1차 면담 시 듣지 못하였던 추가적인 활동과 그 활동 시 이들의 내적인 과정까지 더 들을 수 있었다.

나. 자료 분석 방법

자료분석은 면담을 전사한 자료를 토대로 코딩과 범주화의 반복적인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1차적으로 자료들을 꼼꼼히 반복하여 읽으며, 의미단위로 묶일 수 있는 코드들을 개발해나갔으며, 이러한 코드들을 더욱 큰 범주로 묶으며, 이 전체 범주를 설명할 수 있는 중심이 되는 개념을 찾아내기 위해 고심하였다.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내면의 과정을 새로운 학습을 위한 폐기학습을 중심이 되는 개념으로 채택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과정의 조건이 되는 전환된 맥락으로써의 고독의 맥락적 조건과, 상세한 내적 과정인 성찰과 재구성, 그리고 이러한 과정의 체화를 세 가지 주요 범주로 정하게 되었다.

II. 선행연구

고독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심리학과 사회학, 철학의 학문적 영역에서 이루어져왔다. 이 중 심리학과 사회학은 사회적 관계의 관점에서 고독을 주로 다루어왔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보편의 현상으로 보는 입장과 병리적인 현상으로 보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는 반면, 사회학에서는 고독을 사회 병리적 맥락에서 주로 접근하여왔다. 철학의 영역에서는 고독을 자신의 실존을 만날 수 있는 맥락적 배경으로 보아, 앞선 두 영역과는 다른 접근을 보인다. 고독은 교육학의 논의 안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여왔는데, 그나마 학습과 성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고독에 대한 논의로는 크게 내적 성장과 관련된 논의, 영성의 성장과 관련된 논의, 창조성의 성장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

1. 다양한 학문적 관점에서의 고독 연구

1)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사회심리학에서는 고독을 “주체의 사회적 관계에 중요한 요소가 부족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불만(Taylor, Peplau, & Sears, 1997)”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주체가 자신이 원하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상과 그 실제가 부합하지 않을 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라는 것이다. 이러한 고독은 “일시적인 아픔에서 오는 불만족부터 심각하고 만성적인 우울감”까지 다양한 범주를 포함한다고 본다 (Peplau & Perlman, 1982). 또한 고독은, “정서적인 고독”과 “사회적인 고독”으로 구분하여 이해하려고 시도되기도 하였다(Robert Weiss, 1973). 정서적인 고독을 친밀한 애착대상의 부족상태의 결과로 본 반면, 사회적인 고독이란 사회적인 유대나 공

동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여 발생하는 결과로 본 것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심리학 분야에서 고독과 관련되어 진행된 연구들은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Brita, Unni, & Dagfinn, 2006; Fromm-Reichmann, 1959). 그나마 진행된 심리학 분야의 고독 관련 연구물들은 고독을 일종의 부적응 상황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지만, 여전히 병리적 해석과 일반론적 해석 사이에서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보인다(Greben, 1984; Hattori & Ogasawary, 1995; Russel, Peplau, & Cutrona, 1980).

발달심리이론에서는 특히 고독에 취약한 사람들의 발달과정에서의 개인사가 고독감과 가지는 영향을 언급한다. Carin Rubenstein 과 Phillip Shaver(1982)는 부모님이 이혼한 성인일수록 다른 성인들에 비해서 고독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6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했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6세 이전의 시기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이므로 발달심리 논의에 따르면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이라는 ‘사건’과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애착이론에 따르면 중요타자인 부모와의 애착을 잃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낮은 자존감이라는 성격적 요인도 고독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Olmstead, Guy, O’ Malley, & Bentler, 1991).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위협을 감수하려는 의지가 약할 가능성이 높고, 자신의 가치를 낮춘 상태에서 타인과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로 인해 생겨난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고독감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낮은 자존감 이외에도, 사회적 고립을 자초하는 성격이나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적 장애는 고독감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Gerard Macqeron, 2010).

요약하자면, 심리학에서 진행되어온 고독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많지는 않은 편이며, 여전히 고독을 병리적으로 다루지, 인간 보편적인 현상으로 다루지에 대하여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고독을 촉발하는 심리, 성격, 경험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많으며, 이는 상담이나 병리 치료 등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사회학에서는 주로 고독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인 배경과 그것이 퍼지는 사회적 경로,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주로 고독을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문화 및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는 경쟁과 비관여, 독립의 가치(Slater, 1970)와 대중매체들에 의해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현실과 동떨어진 기대(안근석, 1987)가 지적되었다. 즉, 심화되어가는 개인주의와 경쟁의 논리라는 사회적 원인, 발달한 매체들로부터 쏟아지는 사회적인 ‘정상’에 대한 암묵적 지식이 주체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독감은 사회 연결망과 연관해서도 연구되었다 (Nicholas, & James, 2009). 이들에 따르면 고독감은 “태어나자마자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네트워크보다도 우리가 선택한 사회적 연결 네트워크와 훨씬 더 긴밀한 연관이 있다.” 친구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고독감을 느끼는 일수가 1년에 이틀씩 줄어들었던 반면, 가족의 수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고독감은 사회관계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자, 사회적 관계망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것은 관계망의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관계망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사람들은 친구가 적은 것에 고독감을 느끼지만 또한 그 고독감이 그나마 있던 유대도 단절하게 만든다. 또한 고독감은 물리적 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가까이에 사는 친구의 고독감이 멀리 있는 친구의 고독감의 영향보다 강하며, 고독감의 전파도 관계망의 3단계까지만 전파된다.

사회적 차원의 고독과 그 결과에 대하여서는 주로 자살이나 폭력과 같은 사회문제의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졌다. 고독과 자살의 관계는 노인층으로 대상으로 한 연구가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연구는 고독이 야기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감, 그로부터 파생된 우울의 문제에 주목하였다(Lebret, et al. 2006). 이러한 우울감은, 고독이 청소년 자살의 문제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개로 밝혀지기도 하였다(Lasgaard et al. 2011).

가정폭력과 고독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독감 자체를 문제로 보지는 않았지만, 높은 고독감을 가질수록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수 있다는 상관관계를 밝힌 바 있다(Maarten et al. 2011).

요약하자면, 사회학에서 다루는 고독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에서 작용할 수 있는 감정이다. 고독의 원인뿐만 아니라 고독의 작동도 사회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사회학에서의 고독은 여전히 그것의 부정적인 영향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있는 경우가 많다. 앞서 밝힌 심리학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주로 사회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이자,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3) 철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고독’이라는 주제는 철학분야에서 주로 ‘존재론’과 관련되어 다루어져왔다.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인 “존재와 시간(1926)”에서 인간은 “우선 언제나 이미 본래적인 자기 존재가능에서부터 떨어져 나와 ‘세계’에 빠져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인간이 일상성에서 상실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본래성” 앞에서 도피하지 않게 하는 기제로 바로 “불안”을 든다. 즉, “여태까지 포근함을 제공해왔던 사람들의 세계가 무너지며 전혀 무의미해져버린(이기상. 2006)” “섬뜩함”의 불안 속에서 그간 묻혀 보이지 않던 ‘나’를 보게 해주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불안은 또한 “자기의 현재 모습이 본래적 모습이 아님을 알리는 양심의 목소리(김동규. 2005)”로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양심의 소리와 불안으로 야기되는, 그 동안 안정감을 제공하였던 세계의 무너짐은 주체로 하여금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세계에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로 집중의 대상을 옮기게 한다. 하이데거의 개념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는 상태는 주체가 그 소리를 인식한 상태로, 물리적인 고립의 상태와는 다르며, 이를 일종의 인지, 정서적인 상태인 ‘고독’으로 달리 이름 붙여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Yalom과 Gotesky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고독이 동질한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지적되었다. Yalom(1998)은 고독과 관련된 고립으로 (1) 지리적인 고립등과 같은 사람 간 고립, (2) 자기 방어 뿐 아니라 자아의 분열까지 포함하는 사람 내적 고립, (3) ‘무’ 를 경험하며 자유를 직면하게 하는 주변 세계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 실존적 고립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Gotesky(1965)도 마찬가지로 고독을 (1) 물리적인 고립 (2) 고독감 (3) 개인의 경험이나 외부로부터 야기된 고립감, (4) 자신의 원함으로 선택한 고독 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시사되는 고독의 여러 측면들 중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자신의 원함으로 선택한 고독을 포함한 실존적인 고독이다. 본 연구에서 고립을 연구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고립이 고독과는 다른 것이라는 데에 있다(Taylor, Peplau, & Sears,1997). 고립이란 다른 사람들로 부터 떨어져있다는 객관적인 상태를 의미한다면, 고독은 매우 주관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고립과 고독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사람이 고립되어 있을 때, 고독을 인식할 확률이 높다는 경향성만 존재할 뿐이다.

고독과 실존에 관한 연구에서 Mijuskovic(1979)의 연구는 매우 특징적이다. 그는 인간이 철학적, 심리학적으로 세계에 홀로 있는 존재로 보며, 따라서 고독을 인간의 인식에 있어서 기본적 구조라고 본다. 인간은 전체 중의 개체에서 자신을 자각하는 고립된 개체가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이러한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고립의 대가로 얻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그의 설명은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일반적 가정에 반대되는 주장이며, “유아론에 있어서는 피할 수 없는 주장” (Foti,1981)이다.

요약하자면 철학적 관점에서 다루는 고독은 주로 이것이 주체가 자신의 실존을 만나는 데에 관련이 되어있는가에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러한 철학적 관점은 고독이 인간에게 새로운 학습의 장면을 열어줄 것이라는 연구자의 기대를 뒷받침해준다. 즉, 인간이 주변 세계와 분리된 것 같은 ‘고독감’ 을 인지하고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때, 인간은 익숙했던 주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 이라는 새로운 학습의 장면을 만나게 된다. 이러한 학

습의 장면에서 주체가 만나는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은 익숙했던 주변 세계에서 이루어지던 그것과 비슷할 수도, 다를 수도 있을 것이다.

4) 교육학적 관점에서의 고독

학습을 주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주체가 끊임없이 환경과 자신 사이의 조화를 추구한다고 본다(Jarvis, 1992; Jarvis 2006에서 재인용). 환경의 역동성에 기인하여 주체와 환경이 끊임없이 불일치하게 됨에 따라 주체는 계속해서 자신과 환경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재정립해야 하는데, 주체가 환경으로부터 떨어져서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될 때 학습의 가능성을 상실한다고 보기도 한다(Bauman, 2000; Jarvis 2006에서 재인용). 그러나 학습을 주체와 환경 사이의 관계로 보는 이러한 해석이 가지는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주체와 환경의 거리두기가 단순히 학습의 가능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보는 바우만의 이러한 논리는 지나치게 단순한 설명이다. 오히려 주체와 환경 사이의 끊임없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었거나, 그 관계의 속도나 밀도가 느려지고 낮아진 상태는 새로운 종류의 학습의 조건을 형성해낼 수 있다.

주체와 환경 사이의 끊임없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거나 느려진 것 같은 이러한 상태는 사회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주체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쉽 없이 일어나는 환경의 변화와, 이에 맞물려 돌아가는 주체 내부의 경험의 구조 사이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맥락이 바로 본 연구에서 탐구하고자 하는 고독이다. 이러한 일시정지의 상태에서, 주체는 자신의 홀로 있음을 자각한다. 홀로 있음을 자각한다는 것은 학습의 주체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활동을 홀로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주체가 자기 자신을 주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힘을 신는다는 것임과 동시에 자기 자신 또한 성찰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과는 같다. 인간

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여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데에 있다(한승희, 2006). 이렇게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힘이 실릴 때에 가능한 일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이 성찰의 대상이 될 때에만 가능한 일이다. 이 지점에서 새로운 학습을 위한 폐기학습(한승희, 2006)의 가능성이 열린다.

요컨대 교육학에서 의미가 있는 고독의 맥락은, 주체가 자신이 그동안 익숙해져왔던 환경과 자신 사이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자기 자신의 홀로 있음을 인식하는 상태이다. 바우만에 의해서 학습 가능성의 상실로 해석되었던 고독은,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해 새로운 학습 가능성을 가진 맥락이다.

2. 고독과 학습에 관한 논의

1) 고독과 내적 성장

학습이 “경험을 변화시키는 과정(한승희,2005)”이며, 평생학습이 그러한 “모든 경험의 변화가 내적으로 통일성과 전일성을 획득하는 전 생애적 과정(한승희, 2005)” 라면, 인간이 언제 어디에서나 느껴온 (Mijuskovic, 1979) 고독은 단순히 사회적 소외로 인한 우울감이나 병리적 현상으로 치환해 버려서는 안 되는 삶의 중요한 장면이다. 어쩌면 하이데거의 주장처럼 익숙했던 주변 환경에서 자신을 분리해 내는 이 시간 동안, 주체 내의 경험들이 변화되고, 이러한 변화들이 전일성을 획득하는 일이 가능한 시간일 수 있다.

최근 들어, 고독의 시간을 내면 성장의 시간으로 재조명해 보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loneliness 라는 단어보다 solitude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울로 이어져 병리적 상황

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수동적인 의미를 품고 있는 loneliness 보다, 긍정적인 가능성과 주체의 자발적인 선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solitude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기존의 심리학이나 사회학 연구들과는 달리, 고독을 성장의 시간으로 간주하는 연구물들에서는 고독을 정상적인 삶으로부터의 고립이라고 보기보다는 일상적 삶의 근간(Merton, 2003), 깊은 이해의 시간(Feldman, 2003)으로 본다. 다시 말해, ‘삶으로부터의 분리’가 최종이 아니라, 다시 삶으로 복귀할 것을 전제로 한 분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Merton은 이 시간 동안 자신의 일상적 삶에 대한 성찰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성장의 시간은 “주체의 깊은 필요, 감정, 충동을 깨닫게 하여 자기 발견, 자기실현과 연결” 되는데, 이러한 고독을 위해 “홀로 있을 줄 아는 역량”이 필요함이 역설되기도 하였다(Feldman, 2003).

성장의 관점에서 고독을 바라보는 연구들은 철학적 관점에서 고독의 시간을 실존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본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시간을 인간의 정상적 삶의 일부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철학적 관점에서 다루어왔던 고독의 시간은 고독 그 자체가 가지는 인간 실존의 만남이라는 가치에 집중되어있었다면, 성장의 관점으로 본 고독은, 고독의 시간과 일상적 시간이 변증법적 순환을 이루어낼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성장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고독에 관한 연구들은 그것의 긍정적인 가능성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독의 시간동안 인간이 정말 어떤 학습을 하는지, 홀로 있을 줄 아는 역량은 어떻게 학습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결여되어 있다.

2) 고독과 영성의 성장

인간에 대한 전통적 이해와 근대의 반성으로 등장한 탈근대적 사유를 통하여 살펴보면, 인간을 이해하는 데에 정신적인 측면에 속하는 영성은 또 하나의 중요한 맥락이다. 이성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 근간한 근대적 사

유를 통해 이룩된 문화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탈근대적 사유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키워드 중 하나가 영성이기 때문이다. 탈근대적 사유는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외면되어 왔던 영성이나 감성과 같은 코드들을 주요 개념으로 등장시키기 시작하였다. 이는 ‘이성적 존재’를 넘어서는 인간 이해의 다른 조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영성은 철학적으로 사유의 성찰과정을 요구하지만 그러한 성찰과정이 일어나는 지평이 다르다. 영성의 경우 반성적 성찰은 ‘절대자’ 혹은 ‘초월적 존재’를 상정한 초월적 지평에서 이루어진다(신승환, 2007). 영성은 기본전제의 차이를 기준으로 그케 두 가지 시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영성의 근원이 되는 기독교적 시각에서는 인간의 실존론적 한계와 절대자의 신적 본질에의 참여를 통한 인간의 존재론적 완성을 의미한다(신승환, 2007). 그러나 포스트모던적 영성은 기독교적 영성과 다르게 신적 본질이 인간 안에 존재한다라고 보고 인간의 노력으로 신적 본질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에서의 영적단계의 획득이다(신승환, 2007).

하지만 두 측면에서의 영성 모두 초월적 존재와의 인격적 만남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도달하는 방법으로는 공통적으로 초월적 명상을 든다. 명상은 “마음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몰입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거나 종교 수행을 위한 정신집중”인데, 특히 종교와 함께 발달한 경향을 보인다(유계식, 2009). 명상의 정의에서 드러나듯, 영성의 성장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마음의 내적 몰입’ 또는 ‘정신집중’으로 일종의 선택적 고독을 의미한다. 다만 기독교적 영성의 경우, 신과의 합일의 경험이 목적으로, 포스트모던적 영성의 경우에는 각종 명상이나 수련을 통한 인간의 형이상학적 해방, 혹은 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신승환, 2007).

이러한 영성을 위해 선택적 고독을 채택한 경우의 경험에 대한 서술들을 살펴보면 고독이라는 장면이 영성의 차원에서도 풍성한 학습의 장면임을 발견하게 된다. 고대 수도승인 Merton(2003)의 경우, 이러한 고독의 시

간을 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동시에 신의 현현이 충만한 일종의 파라다이스이자, 자신안의 악한 성질이 고삐를 풀고 등장하는 공포의 공간으로 이중적인 묘사를 한다(Burton-Christie, 2006). 다시 말해, 초월적 존재에 자신의 현재 모습의 반성이 일어나는 장면인 것이다. 게슈탈트 상담이론과 닮아있는 위빠싸나 명상에서는 초월적 존재가 아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에 집중함으로써 지혜를 구한다(유계식,2009). 이 경우는 초월적 존재에 반추하는 것은 아니지만 초월적 감각을 동원하여 이성을 넘어 현재를 반추함으로써 지혜를 구하는 일종의 학습의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고독과 창조성의 성장

고독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성장’ 적 측면으로는 또한 창조성이 있다. 창조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성질(표준국어대사전)”으로, 매슬로우(Abraham H. Maslow)에 의하면 모든 인간의 타고난 능력이다(윤일, 조택연, 2010).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 덕분에 창조성은 예술, 문화활동을 통해 가장 잘 대변된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 이기상(2006)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를 빌어 시인으로 대표되는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우리 내면의 ‘양심의 목소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예술가들이 일반인 눈에 비치는 ‘신들림, 광기, 영감’ 등은 예술가 자신의 내적인 소리가 가지는 ‘낮설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한다. 다시 말해, 예술가들이야말로 일반인들이 일상 속에 파묻혀 듣지 못하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로 대표된 창조성에는 근원적으로 ‘고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음을 해석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Ester(1998)는 창조적인 젊은이들 중 상당수가 자발적 고독을 선택할 줄 알았다는 연구결과들을 들어 자발적 고독이 창조성의 중요한 근간이 됨을 역설한 바 있다. 이러한 자발적 고독은 역사적으로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예술가를 대상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는데, Storr(1988)에 의하면 베토벤의 경우 그의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 한 것이 고립을 낳았지만 오히려

려 그 고립이 그에게는 다양한 소리의 실험들을 해 볼 수 있는 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단순히 고립되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다기 보다는 연구자에게는 오히려 그러한 고립으로 야기된 고독 속에서 자신 내면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위대한 음악가가 되는 디딤돌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조성과 고독의 관계를 질병을 통해서 설명한 연구도 있다. 창조적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조울증적 기질의 우울”과 “분열성 기질의 공황”이라는 정신병리적 기질을 보이는데, 이러한 예술가들은 “창조적 작업을 통하여 인정” 받고 싶어 한다(Sandblom, 2003). 그에 의하면 예술가들 자신도 자신이 우울함을 경험함을 인정하였는데, 특히 바이런은 “특수한 재간을 가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어떤 이들은 유쾌함에, 어떤 이들은 우울함에 감염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요컨대, 창조성과 관련된 고독은 반드시 자발적이며 긍정적인 고독만 있는 것은 아니고, 우울감과 함께 동반되는 고독인 경우들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고독은 창조적인 사람들에게는 익숙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따라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따라 그것을 표출하는 장이 되었으며, 또한 외부와 소통하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여 그것의 한 가지 통로로서 자신의 창조성을 추동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슬로우에 의하면 인간 내재적으로 타고났으나 문명화를 겪으면서 상실하게 된 창조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장면이 고독일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독은 창조성에 있어서 주체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창조성의 목소리를 듣고 발현할 수 있게 하는 학습의 장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결

앞선 선행연구들은, 고독이 교육학의 논의에 터하여 충분히 논의되지 못

하였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고독을 활발하게 연구해온 학문적 영역 중에서도 심리학과 사회학의 관점에서는 사회적인 관계에 토대하여 고독을 이해하려는 흐름이 강했다. 이러한 관점은 고독을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기는 하지만, 병리적인 차원으로 치우쳐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철학적인 접근에서는 고독을 병리적인 것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로 다루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선행 연구 검토에 바탕하여 고독을 ‘주체와 환경간의 끊임없는 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주체가 자신의 홀로 있음을 인지한 상태’로, 교육학적 논의에 있어 의미가 있도록 재정의하였다.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와 이에 반응해오던 주체의 학습된 패턴 사이의 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고, 주체 자신이 학습의 주체 뿐 아니라 성찰의 대상으로도 부각되기 시작하는 고독의 맥락은 새로운 학습의 장면이 된다. 고독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과정은 지금까지 충분히 연구된 적은 없으며, 주로 내면세계의 성장에 관한 논의, 영성의 성장에 관한 논의, 창조성의 성장에 관한 논의에서 부분적으로 그 결과를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Ⅲ. 맥락의 전환 : 함께 있음에서 홀로 있음으로

1. 맥락 전환의 계기

제보자들은 이러한 고독을 자신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여기고, 때로 그 필요가 느껴질 때 자신의 일상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자발적으로 홀로 있는 시간, 다시 말해 사회망의 즉각적인 영향으로부터 떨어져있기를 선택하는 이들이었다. 그러나 고독의 맥락을 “갈망” 하는 이들 제보자들에게도 고독의 맥락을 주목할 일종의 계기가 필요했다. 자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삶의 극적인 경험과, 고독의 맥락을 살아내고 있는 모델을 조우하는 경험은 이들에게 고독의 맥락을 주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1) 삶의 극적인 계기

사회 관계망의 영향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자신의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처음에는 그리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 찾아오는 극적인 경험들은 고독에의 향수를 극대화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믿었던 관계에 대한 큰 실망, 힘과 정성을 쏟았던 일을 실패한 경험,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인생의 무게와 같은 경험들은 피상적인 이해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였다. 이는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던 외부의 영향력에 대한 의존을 그치는 지점이 되었다. 제보자들 중에서 양희진, 한민영, 김상호는 이러한 극적인 계기를 통하여 고독의 맥락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만났다.

김상호는 의지했던 인간관계에서 큰 실망을 경험하게 되었다. 평생 같은 꿈을 꾸며 동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결혼 등으로 인한

상황의 변화와 함께 자신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된 것 같았다. 이로부터 촉발된 외로움은 그동안 자신이 익숙하고 편하게 생각했던 사회 관계망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고, 이러한 회의는 상대적으로 고독의 맥락을 찾는 동력이 되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은 아니지만, 일종의 뭐랄까. 실망? 이런 것도 생기게 되고. 그 뭔가 그리고 또 그 거기서 오는 외로움이 있는데, 그게 어디선가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찾는 게 하나님..허허. 상대적으로 그 실망감만큼 그게 하나님과 내가,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동력이 되기는 한 거 같아요. (김상호)

우리에게 깊은 실망을 안기는 것은 비단 인간관계뿐이 아니다. 마음을 다해 추구했던 일들이 벽에 부딪힐 때 경험하는 절망감과 공허함 또한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공허감을 안겨주는 일들은 대체로 내면의 문제라기보다는, 수행에 따른 결과에 다른 사람들이나 일들이 얽혀있는 일인 경우가 많다.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깨닫게 되는 바, 내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경험은, 관계망으로 향하던 이들의 관심과 열정을 꺾어놓게 된다. 꺾어버린 열정은, 누구와도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상태로 반대편 극단으로 기울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들은 자기 자신의 공간으로 소급해 들어오게 된다. 한민영은 매우 열정이 넘쳤던 인물이었으나, 열정을 쏟았던 일들에 대해 깊이 실망하면서 이전이라면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침묵을 주된 활동으로 하는 모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내가 겨우 저런 거 불라고 저렇게 일을 했나 싶으니깐은, 그래서, 재미가 없어지고, 또 쫓..좌절도 되고, 그래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이게 막 신나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도 싶지 않고, 그리고, 자꾸 말도 없어지게 되고...(한민영)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또한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을 꿈꾸게 한다. 양

희진이 처음으로 고독의 맥락을 주목하게 되었던 것은 지나치게 많은 업무와 부담에 시달렸을 때였다. “미친 듯이” 하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는 일의 무게 앞에 그녀는 서서히 지쳐갔고, 이러한 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결심까지 하게 되었다. 그 때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것이 카톨릭에서 이야기하는 피정, 고요함 가운데에로 피하는 시간이었다.

제가 2004년에는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부서를 두 개를 맡게 됐어요. 근데 늘—저를 힘들게 하는 게 일이에요, 일. 일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게. 그래서 2004년에 그러니까 2002년에 그렇게 미친 듯이 일을 하고, 2003년에 성경공부를 하면서 조금 여유를 찾았잖아요? 근데 2004년 되니까 또 2002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하게 저에게 일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3,4,5월을 버티다가 도저히 이제 일을 너무너무 하기가 싫은..구 버거운 거예요. 그래갖구 제가 우리 총장님한테 갔어요. 사무총장님한테. 총장님 저는 A(직장)를 그만 두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총장님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좀 쉬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일주일정도 쉬어라, 내가 휴가를 주겠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휴가? 휴가? 나는 그만둘 건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쉰 다음에 얘기를 해라 라고 해서 처음으로 피정을 갔어요. 그게 2004년 5월이에요. (양희진)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것과 같은 경험은, 제보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상황을 탈출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켰으며, 이러한 욕구는 일상의 반대되는 맥락인 고독을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힘들었던 그 때 그 시간은, 나중에 되돌아보았을 때, 오히려 일면 다행이라고 생각되기도 했다.

2) 고독의 모델과의 조우

일곱 명의 제보자들 중 모든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기존에 존재하는 고독의 모델과 조우한 것은 맥락 전환을 경험하는 일종의 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고독의 모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

였고, 명상이나 기도법과 같이 다른 선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존재하는 방법적인 틀이기도 하였다. 고독의 모델을 사람들이 살아낸 삶으로 기억하고 있는 양희진, 한민영, 이민상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델은 매우 매력적인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선구자적 인물들의 첫 인상은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구나” 였다.

군대 있을 때 그 친구 만난 그..한 달 후임이었던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사람이 이렇게도 사는구나. 개는 진짜 나랑 엄청 달라. 나랑 거의 정반대. 진짜. 암튼. 어. 진짜, 이렇게도 사람이 살아지는구나.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게도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구나, 보면서 또 좋아..좋아 보이더라고? 그렇게 사는게? 부럽기도 하고. 야..저렇게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기..좋아하는 거, 마음대로, 마음대로? 마음대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지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배운 거지, 보고. (이민상)

이민상은 고독의 맥락을 이미 익숙하게 즐기고 있는 한 달 후임을 보면서 후임이 즐기고 있던 고독의 맥락에 매력을 느끼고 주목하게 되었다. 그에게 있어 이 후임과의 만남은, 이후에 그가 고독의 맥락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삶의 패턴을 구축하는 데 있어 큰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선구자들은 이들을 고독의 맥락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의 삶을 들여 고독의 맥락에 정진해가는 모습이 이를 지켜보는 제보자들로 하여금 그 맥락에 더 깊은 세계가 있을 것임을 감지하게 하였을 따름이다. 한민영은 그녀가 스승으로 생각했던 이가 자신의 정진을 위해 일부러 1년이란 긴 기간 동안 침묵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더 이 맥락에 끌리게 되었다.

선생님 1998년쯤에 만났는데, 한 2004, 97년도 98년도쯤에 만났고, 2004년쯤에 이제 선생님이, 내가 올해 일 년은 사람 안 만나고 말도 안하고 그렇게 침묵하면서 지내려다 그렇게 알고 너네들도 각자 알아서 잘 지내라 이러구서는 그 한 해 모임을 안 가졌어요. 그니까 연초에 그런 뜻을 밝히시고, 그러구선 이제 어디 가 계시는지, 뭐 이런 거 전혀 모른 상태로, 무슨 생각을 했냐

면, 아 선생님 저렇게 정말 고독한 길을 가면서 음..더 깊이 뭔가를 만나고 더 깊이 들어가실라고 하시는데, 나도 뭔가 좀 엄청나게 정진을 해야 되겠다, 올해.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됐어요. (한민영)

이러한 선구자들은 스승으로 삼을 만 했다. 앞서 언급한 두 면담 자료와 아래에 제시되는 면담에서도 드러나듯이, 제보자들은 이런 선구자들을 스승으로 여겼으며 그들처럼 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3박 4일을 낱자를 잡고 제가 이제, 휴가를 내고, 그래서 그 S 수녀원 엘 처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저는 A라는 수녀님이 저를, 이, 이 피정을 인도 해주실 줄 알았더니, B라는 수녀님을 초대해주셨고, 그 B라는 수녀님이 한나(가명) 수녀님이신데, 이 수녀님이 지금까지도 저의 스승님이신 거예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는. 7년, 벌써 8년이네요. 8년째네요 우리 관계도. 지금도 이제 저도, 지금은 예전처럼 막 미친듯이 가지는 않지만, 지금도 제가 저의 그루라고 생각하는 그 수녀님이 계셔요. 그리고 제가 그 후에 많은 영적 스승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스테판 수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수녀님한테 처음으로 제가 피정이라는 걸 받은 거예요. (양희진)

그러나 고독이라는 맥락에 있어서 스승의 역할은 당연하게도 그 중착점을 맞이하게 된다. 고독의 맥락을 거듭해 경험하면서, 제보자들은 서서히 스승의 도움 없이도 고독의 맥락을 자신에게 맞게 조직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간다. 양희진은 자신에게 우는 아이처럼 스승의 영향력에 매달렸던 때가 있었음을 회상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그녀는 그 시기를 지나 주님이 직접 먹이시고 기르시는 단계로 성장했다.

저도 약간 우는 아이처럼 젖 주세요 젖 주세요 했던 단계가 있었어요. 그 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주님이 저는 그렇게 주셨다고 생각하구요. 그게 사실은 베네딕토(가명) 수사님으로 해서 끊긴 거예요. 베네딕토 수사님이 그 계기가 되었어요. 베네딕토 수사님 전에는 되게 제게 살가우셨어요. 그런데 베네딕토 수사님은 살가운 스타일은 아니고 저에게 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위로도 안하시는 분이세요. 그 전에 신부님도 요한(가명) 신부

님이라는 분도 굉장히 살갑지만 툭툭 던져서 제가 기분 상하지만 근본적으로 다정한 분이세요. 그래서 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런데 베네딕토 수사님이랑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아! 어느 정도까지만 내가 받아.. 그리고 그때는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어떤 단계에서는 굉장히 학습되듯이 습관이 되듯이 되었지만 지금은 아네요. 지금은 그렇게 교류하는 분이 안계세요. 저는 이제 스스로 한다니까요. 주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거죠. (양희진)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제보자들은 오직 자신에게만 맞는 고독의 맥락을 발전시켜갔으며, 이들 자신 또한 스승이 그랬듯 고독의 맥락에 있어서 선구자가 되어갔다. 제보자들은 스승 혹은 모델의 영향력을 흡수하며 거듭해 고독의 맥락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홀로 서게 된다.

실제적인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삶을 살았던 선구자들은 고독의 맥락을 보내는 일종의 방법적인 틀들을 남겨 놓았다. 기도법이나 묵상, 명상과 같은 이러한 방법적인 틀들은, 제보자들이 고독의 맥락을 경험하기 시작한 초기에 어떻게 이 맥락에서 있으면 좋을지 몰라 헤매게 될 때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김상호, 고준희, 김종훈, 박동희는 이러한 방법적 틀과 조우한 기억이 있다. 김상호는 고독의 맥락에서 첫 디딤돌로 기도법을 만났고, 그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관상기도가 자신에게 잘 맞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되어갔다. 이러한 방법적 틀을 통해 경험한 고독의 맥락은 김상호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어서, 이러한 기도법을 더 배우고 싶게끔 하였다.

나한테는 그 침묵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나 혼자 있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하느님과 내가 같이 머무는 시간이었던 거 같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이제 대학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해. 그러면 아침기도, 저녁기도 해서 우리 이제 수도원에서 기도하듯이 기도를 다 하는데, 그거는 기도서 가지고 그냥 줄줄이 읽고 막 하는데, 체계적으로 내가 기도를 배워본 적

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아는 선배,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 선배랑 만나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1박 2일씩 기도하고 공부하고. 전국에 있는 수도원들 찾아다니면서 피정하고. 그런 걸 시작을 했죠. (김상호)

고준희는 묵상의 방법으로 고독의 맥락을 처음 만났다. 다른 잡생각이 없이 말씀 하나에만 집중하여 마음을 가다듬었던 고독의 맥락에서의 경험은 일상의 다른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 또한 당시에 묵상과 함께 병행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글쓰기는 이후 고준희가 고독의 맥락을 보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공부하기 전에 항상..말씀을 보던지 했던 거 같애. 근데 그게 그 이유가, 공부를 할려면은 딴 생각, 잡생각이 없어야 되잖아. 잡생각 없앨려고 이제..시작을 했던 거 같애. 그래서 오늘의 양식..이라는 책자 있잖아, 그걸 보면서, 생각을 집중시키고 마음을 가다듬고, 한 30분? 한 시간 정도? 안 그러면 그냥 성경말씀을 본단던가? 그 다음에 공부를 했을 때, 정말 집중력이 뛰어났거든. 그걸 몇 번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계속 하게 된 거 같애. 그러면서 이제...글씨 노트에 집중적으로 적게 된 거는 Q.T. Q.T 노트.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할 때? 그게 습관화가 된 거 같애. (고준희)

생각들이 자유롭게 떠오르고 흘러갈 수 있도록 두는 명상의 방법 또한 좋은 디딤돌로 역할하였다. 김종훈에게 있어서 명상은 고독의 맥락을 보내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던 초기에 시도하였던 한 가지 방법이었다. 비록 그에게 있어서 명상은 주된 방법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였고, 때때로 병행해서 사용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되었지만, 전혀 방법을 모르던 초기에 시도해볼 법한 방법적 틀이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 명상이 좋다고 하길래 했는데 의외로 집중이 잘 안 돼요. 너무.. 그런데 너무 우울하거나 답답하거나 막 그럴 때에는 호흡을 크게 들이쉬었다가 내쉬는 작업을 계속 반복해요. 아무 말 없이. 가끔씩은 그래서 불을 꺼놓구요. 뭐 불을 조그만 거 하나만 켜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놓고 집에 매트 같은 거 있으니까, 매트에 앉아서가지고, 이렇게 숨 내쉬는 거

쥬. 그러면서 그냥 그 호흡에 집중해요. 그럼 가라앉는 거죠. 그니까 가라앉는 걸 계속해요, 그냥 그렇게. 그럼 좀 나아지고.. 그런 그런 그런 것 같아요. 뭔가를 다른 사람처럼 그것에 깨달음을 얻는다던지 그러지는 않는 것 같구요.
(김종훈)

박동희의 경우에는 명상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경험되었으며, 그가 이후에 고독의 맥락에서 시간을 보내는 주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그는 명상을 특별히 배운 것은 아니었지만, 기독교와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명상하는 법을 찾아보고 시도해보는 것을 통해 고독의 맥락을 만났다.

명상하는 시간, 그냥 그냥 그런 명상하는 법을 따로 배운 건 아닌데, 주로 기독교든 불교든 명상하는 법에 대해 얘기하는 사람들의 규칙이나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은 선불교 쪽 전통이 있거든요.
(박동희)

요컨대, 모델이 사람이건 방법적 틀이건, 그 조우가 매력적이었던지 혹은 거쳐 가는 모델이었던지 간에, 익숙하지 않은 고독의 맥락을 처음 접하는 데에 있어서 모델은 이들 일곱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문이자 디딤돌이었다.

2. 전환된 맥락으로서의 고독의 조건

삶의 극적인 계기와 고독이라는 맥락의 모델과 조우하는 것을 통해 주목하고 경험하게 되는 고독의 맥락은, 제보자들의 경험에 따르면 세 가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상황에 의해 야기되는 자극의 일시적 중지와 이들이 가지는 위기(爲己)적 목표, 객관적인 정답이 없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주제의 세 가지 조건이다. 이 세 조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들이 경험하는 고독의 맥락을 조성하여 내었다.

1) 끊임없는 상황적 자극의 일시 정지

모든 제보자들에게 고독의 맥락은 외적인 자극이 끊임없이 몰아치던 흐름이 일시적으로 멈추어진 것에 가깝거나 늦추어진 맥락이었다. 어떠한 방법으로 고독의 맥락에서 시간을 보내던지, 이들은 한결같이 외적인 자극의 영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외적 자극의 최소화는 고독에 몰입해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었다. 이민상이 남산을 올라가는 동안의 시간 또한 이러한 외적인 자극이 최소화된 맥락이었다. 걸으로 보기에 몸이 움직이며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상황의 자극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는 이러한 상황적 자극에 상대적으로 둔하게 반응한다. 올라가는 시간 동안만큼은 오히려 남산이라는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듯하였다.

남산이 신기한 게, 막바지가 엄청 가파르거든. 막바지가..다 가서 정상 딱 올라가기가, 남산타워 있는 데 까지 올라가기가 진짜 뻑세. 거기가 진짜 완전 가파르거든. 근데 뭐 이게 딱 올라가고 나면 그런..게 있기는 해. 어..카타르시스? 아이. 그 정도 엄청난 건 아니지만, 고런. 그러면서 뭔가 올라가면서 이런 투덜투덜한다던지 뭐 이런 뭔가 배출하고 막 이렇게 토해놓고, 딱 올라가면, 쯤썸 어느 정도, 흥가분해지고 마음으로 이렇게..야경도 보고, 고런..앉아가지고, 거기 벤치에 앉아서 사람구경도 하고, 쯤 앉아 있다가, 야경도 보고 한..1,20분 구경하다가 내려오면 내려올 때는 그래도 많이 풀린 상황..상태에서 내려오지. (이민상)

이렇게 외적인 자극이 최소화된 조건은 내면의 상태를 오히려 활발하게 만들었다. “가만-히” 있는 시간으로 고독의 맥락에서의 활동을 명명한 한민영은, 이 시간이 외적으로는 고요할지 모르나, 내적으로는 활발한 상태를 경험하였다. 분주한 외적인 자극에 내어주던 자신의 집중을 의지적으로 끊어냄으로써, 그는 오히려 자신 내면의 소리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그 때 모이면은 가만-히 앉아서, 삼십분도 좋고 한 시간도 좋고 가만-히 있어

요, 그냥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복잡한 생각들도 막 올라왔다가도, 어느 정도 있으면은 좀 편안해지고 차분해지고 생각이 안 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되게 좋아서 그 다음 집에 와서도 혼자서 네, 음..향 하나 피워놓고, 향에.. 그 향이 다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걸 해 봤어요. 향에 따라서 다른데, 어떤 향은 한 삼십분도 가고, 어떤 향은 한 오십 분까지 가더라구요? 천-천히 타들어가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항상 그 향이 사라질 때까지 가만-히. 그런 시간 좋아요. 아무 것도 안 하는 걸 한 번 연습을 했죠. (한민영)

이 시간은, 한민영이 평소에 보내던 일상과는 현격하게 다른 시간이었다. 그녀의 일상은 언제나 바빴고, 분주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만 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고독의 맥락은 그녀에게 익숙했던 일상의 맥락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다가온 편안함이었다.

이러한 시간은 특히 초기에는 물리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물리적인 노력은 실제로 외적인 자극을 최소화하는 데에도움이 되었다. 적어도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체보자들에게 일종의 사회적인 고립 상태를 조성하는데, 이러한 상태는 어떻게 전환하느냐에 따라 일상을 탈피를 이루어낸 고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양희진은 피정의 상황을 이러한 환경으로 활용하였다. 피정의 과정 전체를 고독의 맥락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피정이라는 환경은 일상의 맥락으로부터 일단 떠나있는 환경이라는 점과, 익숙한 사회적 관계로부터도 떠나있으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최소화되어있다는 점에서 고독의 맥락에 근접한 환경이다. 양희진은 고독을 처음 자발적으로 찾기 시작하던 초기에는 미친 듯이 피정을 가야만 했다. 이는 그러한 환경에서만 비로소 고독의 맥락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스멀스멀 일어났구요, 2004년 제가 5월에 이걸 했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의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갔어요. 무조건. 무조건 갔어요. 배낭 매고, 토요일 밤에 가서 일요일 아침에 나오는 거예요. 이..가서, 이 이 기도를 하고 싶어 갖고. 예수님을 더 만나고 싶어갖고. (양희진)

김중훈이 좋아하는, 밤 시간 홀로 여행을 떠나는 버스 안 또한 이러한 물리적 환경 조성의 일종이다. 달리는 차 안에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이 홀로 있는 것은 일종의 사회적인 고립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이러한 고립의 상태를 자신의 일상을 탈피하여 보낼 수 있는 고독의 맥락으로 전환하였다.

정기적인 건 아닌데, 여행을 가끔씩 혼자 가요 가는데, 막상 가서는 사진 찍거나 돌아다니면서 그냥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 같고. 차를 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뭐 어떻게 이동할 때 움직일 수 없는 순간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혼자 이래저래 생각하고 글도 쓰기도 하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정리..주로 그런 시간에 정리를 하는 편이죠. (김중훈)

이러한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내는 노력은 다른 모든 제보자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고준희의 경우에는 일부러 방문을 걸어 잠그거나 혼자 카페를 찾는 것으로, 김상호의 경우에는 자신만의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외적인 자극이 완전히 멈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극의 정도를 의지적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했다. 또한 고독의 맥락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제보자들은 이러한 자극의 일시정지를 자연스럽게 경험하기도 했다.

2) 위기(爲己)적 목표

제보자들은 고독의 맥락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였다. 고독의 맥락에서의 시간의 흐름이나 반복적으로 고독의 맥락을 경험함에 따라 변화를 보였지만, 제보자 모두 그 시작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나만을 신경 쓸 수 있었고, 나만을 돌볼 수 있었다. 고독의 맥락에서 이민상은 철저히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관련된 것들에만 집중했

다. 이는 결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배제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고, 집중하게 되었을 따름이었다.

이런 이제 솔리튜드의 시간을 갖게 되면, 거의 뭐..물론 내가 뭐 내가, 내가 원래 성향 자체가 물론 다른 사람들 막 엄청 막 생각하고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 그런 시간은 진짜, 어 거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그러..그러진 않는 거 같애. 거의 나. 전적으로 나. 내가 완전 가장 가장 이제 그런 중심에 있는 거지, 그치. 나와 나와 관련된 것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지. 뭐 예를 들면 나아가지고 막 전도사님 요새 힘들겠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한다 이거지. (웃음) 어. 어. 그런..잘 안 하게 되는 거 같애, 그래본 적이 없는 거 같애. 그냥 아. 내가..나는 요새 어떤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전적으로 나를 나..내가 중심에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민상)

스스로가 스스로를 돌보는 고독의 맥락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제보자가 자기 자신을 한 사람의 성인으로 인식하는 데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책임질 수 없고, 책임져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고독의 맥락은 자신이 스스로를 책임지기 위해 쏟아야 하는 노력이었다. 아직 그 인생에 결정되지 않은 영역이 큰 청년기를 보내고 있는 고준희, 이민상, 김종훈 모두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들로 하여금 홀로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제는 다 혼자서 찾아가야 되더라구. 누가 이제 살짝 정보를 툭툭 줄 수는 있지만은 야, 너 여기로 가야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해주는 사람은 없으니깐은. 그 사람들도 내 인생에 책임은 지고 싶지 않고, 심지어 부모님도 그러시니까. 그렇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지. (고준희)

이에 더하여, 제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오래된 고민들 또한 고독의 맥락의 위기(爲己)적 성격을 두드러지게 하였다. 양희진은 몇

년에 걸쳐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마음에 평안을 찾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 그러기에는 자신이 가진 문제가 너무 많았고 컸다. 자신의 상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고독의 맥락을 만나면서 철저히 위기(爲己)적 목표를 일깨웠다.

2009년부터 중보기도를 알게 되었고 중보가 되더라구요. 그전까지는 남을 위한 기도도 형식적이었고 제 기도가 더 많았어요.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서 남을 위한 기도까지 할 여력이 없었어요. 제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좀 평화로워지니까 2009년부터 남을 위한 기도가 되었고 (양희진)

문제의 심각성에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들은 이들로 하여금 일상을 떠나 혼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이 시간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게끔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러한 위기적 목표는 고독의 맥락에서의 경험이 반복됨에 따라 그 색이 조금은 열어진다는 사실이다. 자신의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고독에도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3) 정답이 없는 주제

제보자들이 경험한 고독의 맥락에 있어서, 주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보자 모두는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몇몇 주제들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러한 주제들은 간단히 풀리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 것인가, 진리와 본질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사는 세상은 어떠한 곳인가와 같은 질문들로 크게 구분될 수 있는 이러한 주제들은, 마치 지하수와도 같이 제보자들의 마음 깊이 흐르고 있었다. 고준희는 언제나 자신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풀어야 할 주제를 잊은 적이 거의 없었다.

나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애, 그거를. 항상 뭔가..주제가 있어. 내가 생각

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풀어나가야 되는 게 항상 있는 거 같애. (고준희)

박동희 역시 이러한 주제가 자신의 무의식 속에 늘 가라 앉아있다고 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는 잊어버리는 것 같을 때에도 있지만, 이것은 의식적 차원에서 떠올리지 않을 뿐이지, 잊은 것이 아니었다. 무의식 속에 늘 잠재되어 있는 이러한 물음들은 때때로 불쑥불쑥 올라온다.

기본적으로 이게 뭘까, 결혼이라는 게 뭘까, 이성이라는 게 뭘까, 죽음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정말 있는 존재일까 신앙이라는 게 뭘까, 몇 가지 주제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고, 일상이 바쁠 때는 잊고 살다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삶 속에 어떤 게 있는 거겠죠. 신문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신도들을 성폭행했다. 정말 진리라는 게 뭘까. 하나님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수면 안에 가라앉아 있던 문제들이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통해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죠. 그런 건 나도 모르게 무의식에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불쑥 불쑥 올라오게끔.. (박동희)

무의식 속에 깔려있는 이러한 질문들은 주로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객관적인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 물음들이었다. 이러한 물음들은 진로, 미래, 관계와 같은 주제 영역으로 주로 표상되었는데, 이렇게 표상된 주제들은 내가 누구인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와 같은 본질적인 질문과 늘 맞닿아있다. 쉽게 풀릴 수 없는 이러한 질문들은 경우에 따라 수년의 세월 동안 제보자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기도 했다.

근데 그게 되게 인텐스 하게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그냥 있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이게 다시 올라와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해결이 돼 가는 단계기는 해. (고준희)

이러한 질문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일종의 부대낌에 의해 상기되는 경우가 많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감을 일단 다루어내지 않으면 안 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본 연구

의 제보자들은 잘 알고 있었다. 양희진은 부대낌의 상황에 짧게 짧게 하는 기도만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

짧게 할 때는 짧게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임시방편적 기도일 때가 많아요. 지금 할 때는 지금 화가 났으니 화만 안 나겠지 하지만 화를 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녜요 그 중에서 제 안에 어떤 부대낌 그리고 제 뜻대로 저 사람을 조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원인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는 건 길게 해야 할 거는 긴 피정 가서 해야 하는 거죠 (양희진)

그녀는 일상에서의 부딪힘이 본질적인 물음과 맞닿아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주제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제보자들은 고독의 맥락을 깊이 있는 앎을 추구하는 장으로 활용하기도 하였는데, 이것 역시 앞서 언급한 본질적인 물음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보자들이 홀로 있을 때 탐독한다고 하였던 주제들은 성경, 신비주의 사상, 사회 거시담론, 경제학이었는데, 이들의 의도는 해당 영역에서 가시적인 전문가적 지위를 획득하는 데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순진한 궁금중에서 탐구를 시작하였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내고 싶어했다. 이들에게 이 영역들은 쉽게 답을 낼 수 없는 영역이었고, 시간을 들여 홀로 탐구 할만한 것이었다.

최근에 보는 책들이 약간 그런..정치 사회 경제 암튼 뭐 이런 쪽이야. 현실 세상,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런 책들인데, 그런 거 이제 읽다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나..내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음..근데 좀 뭐랄까 조금 그런..평소에는 생각하기 어려운...나의 일과 중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좀 뭐랄까 거대담론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하고, 좀.. 좀.. (이민상)

제보자들은 성경 한 권을 집중해서 통째로 읽거나, 혹은 그 중 한 권을 집중해서 읽기도 한다. 양희진은 특히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성경의 부분을 위해 분별된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의 관점으로 단번에

이해하지 못하여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양희진에게 있어서 성경이, 객관적인 지식을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며, 자신에게 꼭 들어맞게 이해되어야 하는 일종의 구도의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긴 단위 때는 좀 3박 4일정도 분별된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성경을 좀. 성경도 왜 복음이나 그런 것들은 단락 단락 읽어도 되지만 읊기 같은 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예레미야 같은 것도 그렇고 다이나믹 하니까. 그런 거 읽을 때에는 사실은 아침마다 잠깐 잠깐 읽는 것 가지고는 갈급함이 있죠. (양희진)

박동희의 경우 ‘예수가 실재인가 아닌가’ 라는 신학적인 물음이 자신의 실존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로 다가왔을 때, 이 문제는 확실히 홀로 풀어야 할 문제로 여겨졌다.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었고, 결국은 내가 설득이 되어야 했다.

나한테는 그게 너무 절박한 문제였고, 그 책을 놓고 누군가랑 토의하거나 토론할만한 여유도 없었고, 오광남 교수가 한 말이 진짜지 가짜지 알아봐야 했었기 때문에 관련된 책들을 찾았던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나름대로 한들 출판사나 그런 대한기독교서회나 그런 철학적인, 철학신학적인 책을 내는 출판사의 책을 보게 되니까, 그런 책을 보려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 당연히 혼자 책을 보지 누구랑 한 글자 한 글자 읽을 테니까 너가 어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박동희)

자신의 전공분야를 더 깊이 공부하는 김종훈의 경우에도, 이러한 원론적인 고민들은 이미 직장을 잡은 그에게 있어서 당위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러나 가치관과 그의 전공분야 사이의 괴리라는 풀리지 않는 관계는 이러한 당위의 유무를 떠나 해당 분야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도록 추동하였다.

현실의 모습과 꿈꿨던 모습과, 근본에서의 나. 세 개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에 대한 고민인거죠. 그래서 뭘 더 배울 것이냐. 거기서 가지는 게 아

직은..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1년 쯤 지났을 때 그 당시에는 빨리 빨리 그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하고 싶었는데 1년 있어보니까 도저히 단기간에 풀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좀 더 관점을 바꾸었고. 일단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대안들. 제 주류 쪽 공부들,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던 것도 있구요. 그러면서 책들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거구요. 생각도 하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중훈)

요컨대, 제보자들에게는 일종의 지하수와도 같이 깊은 심연에 흐르는 주제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주제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대낌을 통해 그 존재가 드러나곤 하였다. 이러한 심연의 질문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때, 혹은 무시할 수 없는 정도로 드러날 때, 제보자들은 일상을 떠나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심연의 질문들은 깊이 있는 삶에 대한 추구로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어떤 가시적인 지위의 획득이나 전문성의 획득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해당 지식의 영역에 대한 자기만의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

3. 소결

고독은 제보자들에게 일종의 맥락적 전환이었다. 익숙하게 여겨오던 일상의 맥락으로부터의 맥락적인 전환은, 인생의 극적인 경험과 고독의 맥락에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인물을 만나는 두 가지 계기를 통해 처음 주목을 받고 경험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이들이 경험한 고독의 맥락은 세 가지 조건들의 역동으로 형성되는 것이었다. 끊임없는 상황적인 자극의 일시정지, 위기(爲己)적 목표, 객관적인 정답이 없는 주제가 그 세 조건이었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황적인 자극의 일시정지는 위기적 목표가 발현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또한 객관적인 정답이 없는 주제를 탐구하기에 적합한 장으로 역할 한다. 위기(爲

己)적인 간절함은 상황적인 자극의 일시정지를 원하게 만들고, 또한 위기적인 목표는 객관적인 정답이 없는 본질적인 물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정답이 없는 주제도 마찬가지로 상황적인 자극을 정지하지 않고 집중하기가 어려운 물음들이며, 결국 자기의 답을 내려야만 하는 위기적인 물음이기도 하다.

IV. 성찰과 재구성 : 경험의 재판 짜기

1. 인식의 차원

제보자들이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한 인식의 과정은 폐기학습과 새로운 학습의 교차이다. 자신을 구성하고 있는 경험들을 쏟아내는 과정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구성된 자기이해가 절대적이지 않음을 인정하고 확인해 가는 과정이었다. 절대성의 부정은 자기를 구성하고 있던 경험을 풀어내게 하였으며, 이전의 패턴이 풀어짐에 따라 경험들을 성찰하고 새로 구성하는 작업이 가능해졌다.

1) 영킨 경험들 풀어내기 : “정직하게” 쏟아내기

제보자들이 주로 처음 고독의 맥락에서 하는 작업은 자신의 영킨 생각들을 쏟아내는 일이었다. 그 방법은 말하기와 닮아있는 기도에서부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명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고, 제보자들에 따라 이러한 과정이 익숙해지면서 이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마음의 평정상태에 도달할 줄 알게 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쏟아내기의 과정은 모든 제보자들이 경험한 과정이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서 떠오른 생각들 중에서도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생각은 이들의 심연에 흐르고 있는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생각들은 일상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엉켜있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을 쏟아내어 나열하고 모아가는 작업을 통해 그 영킨이 비로소 풀리게 된다. 고준희는 혼자 앉아서 고민이 되는 주제와 관련된 생각들을 차분히 써내려 가는데, 이러한 과정은 부분 부분 떠올라 정리되지 못하고 얽혀있는 생각의 덩이들을 한 곳에 모으는 과정이었다.

한 주제에 관해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어떤 생각은 며칠 전에 왔던 거고, 어떤 생각은 방금 났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애네를 한 데 모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정립을 시키잖아. 그리고, 개네들을 하나씩 나열하면서 글로 적어가면서 애네가 정리가 되는 거지. 관계, 관계성? 관계가 보이고, 그러면서 정립이 되는 거 같애. 내가 이런 생각도 있었지, 저런 생각도 있었지, 이렇게 되면서 어떤 한 결론에..닿게 되는 거 같애. (고준희)

이렇게 생각을 쏟아내는 작업은 논리적인 정합성에 대한 부담을 빚겨간다. 다시 말해 제보자들은 생각을 쏟아내는 동안, 쏟아낸 생각의 총체가 논리적인 완결성을 가진 담화가 되어야한다는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 생각 쏟아내기는 이민상의 경우 “투덜” 거림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생각들을 투덜거리는 방식으로 풀어냈는데, 투덜거림은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주고 위로해주시기를 기대하는 말하기 방식으로 그 안에는 논리성에 대한 압박이 없다.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듯이 아마 마음속으로 생각을..여차여차해서 짜증난다, 뭐 아이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 고런..고런 거? 투덜투덜 거리고 고런 약간..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의 올라가면서 약간..그치..올라가면서 막 받았던 스트레스나 막 이런 것들을 막 엄청 내려놓으면서 올라갔다, 내려올 때는 또 기분이 좋아, 올라가서 또 야경..뽕 뿜린 거 보고 오니까. 그치. 내려올 때는 또 훌가분한 마음으로 내려오고, 약간..고런 게 있어. 남산은...(이민상)

자신의 이야기를 평가할 존재가 없는 이 맥락에서, 제보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자유롭게 떠오르게 내버려두었다. 김종훈은, 이 시간의 기록이 “의식의 흐름”을 따른다고 이야기한다.

가끔씩은 비유처럼 적힐 때도 있구요. 약간 의식의 그럴 때는 약간 의식의 흐름처럼 적히거든요? 그 때 떠올랐던 생각들을 막 적어놔요. (김종훈)

여행 가서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 시간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누군가한테 말을 걸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생각들이 떠오르

다가, 계속 생각들이 엄청 떠올라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명상이나 그런 것들 하고는 달라서 흘러보내진 않아요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그냥 눈 감고 혼자 앉아 있으면은 그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차에 앉았을 때면 계속해서 막 맴돌아요. 그런 생각들이. 맴돌고 맴돌다가 가끔씩 어떤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렇게 바뀌어서 막 이렇게 나오.. 가끔씩은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김중훈)

고독의 맥락에서 주로 ‘글쓰기’를 택하는 고준희 또한, 이 맥락동안의 글쓰기는 글의 형식이나 논리적인 흐름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정리가 된 상태에 도달하는 목적만을 가진 글쓰기이다.

생각을 이제 정리해나가면서 그렇게 써. 근데 대다수가 길게 쓰는 거 같애. 글이 생각이 이제 정리 될 때까지 쓰니까, 그 만큼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글이 장수가 늘어나고 그런 거지. (고준희)

그런데 이렇게 쏟아낸다는 것은 지금의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자각에 토대하여 일어난다. 지금의 자기에 만족하지 않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변화의 가능성이라는 두려움으로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

기도 중에 그걸 그대로 자기 그.. 내가 생각할 때 그 절망스러운 모습을 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정직하게 드러내서 가지고 나가는 거. 그리고 그냥 그 빛, 하나님의 빛 아래서 가만히 내가 머물러 있으면 그렇게 있는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큰 야단치는 게 아니고 뭔가 나를 이렇게 위로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되고, 새로운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다시 다른 눈을 갖게 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니까 좀 다시 보게 되는 것일까 그지? 새로운 마음이 열리는 거. (김상호)

김상호는 자기 자신의 절망스러운 모습을 부정하지 않는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습에 절망한 마음을 외면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자기의 현재 상태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자신을 변화가능성으로 열어놓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꺼내어 놓는 것이 가능

해진다.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전부 쏟아 놓을 때, 김상호는 사태를 바라보는 다른 눈을 경험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성숙을 경험하게 되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러한 쏟아놓음의 중요한 계기가 되지만, 이 작업은 철저하게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로 제보자들은 홀로 있는 시간 동안 안락함을 느꼈고, 이러한 안락함은 이들이 긴장을 풀고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많이 편안하고, 전 또 워낙에 사람들하고 복잡하게 일도 하고, 복잡하게 살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나 혼자,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자체가 되게 편안한 거죠. 안락하고, 아주..그냥..(한민영)

이러한 안락함은 사람에 따라서 신의 존재로 구체화되기도 하였고, 신의 존재를 분리해냄으로 얻어지는 것이기도 하였다. 신의 존재를 편안하게 느끼고 인정하는 제보자들의 경우, 신의 존재가 있음으로 일상과 분리되어 홀로 있는 시간을 안전하게 여기게 되었다. 김상호는 기도를 할 때 느끼는 신의 모습이 야단치지 않으며 위로하는 존재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고준희 또한 기도를 할 때, 신과의 친밀감이 증폭될수록, 자신의 모든 것을 받아주는 존재로 신을 느낀다. 이렇게 안전함이 느껴질 때, 제보자들은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드러낼 수 있었다.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증폭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같애.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날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아껴주신다 라는 거 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 같애. (고준희)

반면, 신의 존재가 부담으로 다가왔던 박동희는, 과감히 신의 존재를 이 시간에서 제한으로써 스스로에게 안전한 시간으로 만든다. 이전의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을 변화’ 시키려던 강박적 존재로 여겨진 신의 부재는 박동희에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었다.

지금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혼자 있으면서 뭔가 내 자신

의 어떤 자유의지라고 해야 하나 재량이 있는 거예요. (중략) 그 때는 하나님 일로와 나랑 1시간 이렇게 만나야 해. 나한테 깨달음을 줘야 해.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이 변해야 해 라는 어떤 강박적인 라인이 있었던, 별로 그렇게 자유로웠던 경험은 아닌, 기도원 생활도 그렇고. (박동희)

이렇게 솔직하게 쏟아내는 과정은, 단순히 있는 대로 끄집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엉켜있던 경험들은 표현되면서 서로 간의 관계가 느슨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느슨함은 성찰적 자아가 작동하기에 좋은 배경이 된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스스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처럼, 제보자들은 홀로 있는 동안 쏟아내는 서사를 통해 자연스럽게 시선의 이동이나, 본질이 아닌 것을 판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2) 성찰과 재구성 1 : 다양한 입장에 서서 “진단” 하기

이야기로 생각들을 풀어내는 동안, 처음에 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다. 그러나 내가 해당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서술이 어느 정도 충분해지면, 이러한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으로부터 관련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 혹은 이러한 주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 3자의 시선으로 옮겨간다. 어떠한 주제를 고민하던지, 그 주제 안에는 자신이 경험하는 사회가 반영되어 있어서, 자신의 입장만을 가지고 고민할 때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일환인 다른 관계자의 시선 혹은 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외부의 시선으로 옮겨가는 것은,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제보자들의 대부분인 양희진, 한민영, 김상호, 고준희, 이민상, 박동희는 이러한 시선의 이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태와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인물이 있는 경우를 예로 든 양희진과 이민상의 경우에는 실제 인물의 입장으로 이동하여 사태를 보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구체적인 인물이 있는 경우에도, 없는 경우에도, 여섯 제보자 모두 사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제 3의 입장에서 떨어져서 사태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을

경험하였다. 다양한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보는 이러한 경험은, 제보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중심으로 구성해온 사태에 대한 이해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각에 근거해서 사태를 재조직하여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반응패턴의 학습을 낳았다. 양희진의 경우, ‘언제까지 애를 봐줘야 되’는 지에 대한 마음이 먼저 표출되고 난 이후에 동생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여유를 찾게 된다. 동생의 입장으로 옮겨 생각하기 이전에 양희진은 자신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봄으로 인해, 그 사태를 구성하고 있는 자신의 경험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조직하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 이해는 자신의 억울함으로 귀결되었다. 그러나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동생의 입장으로 옮겨 생각하는 작업을 통해, 양희진은 자신의 입장을 중심으로 조직해온 사태를 해체하고 새로운 시선으로 사태를 조직하고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를 통해 결국에는 동생을 대하는 태도의 패턴을 바꾸게 된다.

그러다 보면 제가 제 동생을 보는 시선이, 기도를 한 다음에 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까지 꼴도 보기 싫다가, 재도 불쌍하지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재만큼 힘들 것인가. 라면서 정리가 되고 개가 가엾은 생각이 들고 긍휼함이 생기고 (양희진)

나의 입장에서 조직된 이해를 해체하고 사태를 관련된 여러 입장에서 다시 재조직해보는 이러한 작업은, 결국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보다 넓은 차원의 이해의 형태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처음에는 하나의 면만을 가진 것 같이 보였던 사태가 실은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면들을 함께 고려하게 되면서 결국은 더 깊고 넓은 차원에서 형성된 사태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여 자신의 위치를 가늠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민상은 자신의 입장 이후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보는 것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상황을 보고 그 안에서 다시금 자신을 위치시킴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을 이해하게 된다.

내 입장에서도 보고, 어..다른 사람이 겪어있다면, 뭐 다른 사람 입장에서도

보고, 그런 게 아니라면 제 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암튼 그냥 그 문제되는 나에게 그런..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이렇게 좀 진단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보면서, 이렇게..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한 번 보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아무래도. 왜냐면..일단은 뭐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나만 이런 건 아니겠구나, 내지는 아..그렇지 그 사람이 뭐 뭐 사정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아니면 이렇게..사람이 안 엮여 있다면, 뭐..어찌됐든 그런 진단을 한 번 하면은..좀 나아지더라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이민상)

이처럼, 고독의 맥락에서 다른 입장에 서본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입장에 다른 입장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작업이 아니었다. 다양한 입장에서 사태에 대한 이해를 해체하고 재구성함을 통해서 사태에 대한 자신의 보다 깊고 총체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일이었다.

3) 성찰과 재구성 2 : “어떤 게 본질인지” 를 물으며 가지치기

복잡하게 얽혀있던 생각들이 이야기로 표출되는 과정에서 풀어져가는 상태는, 상대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해당하는 생각과 주변에 해당하는 생각이 구별되기에 좋은 상태가 된다. 일곱 제보자 모두는 자신이 고민하는 사태에 본질이 있을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사태 자체로 보았을 때는 각기 다른 문제 같아보여도 그 문제를 통한 사고는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로 귀결” 되더라는 박동희의 진술은, 사태의 표면에서 심층으로 파고들어가는 사고의 과정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구별은 본질이 무엇인지 따져 묻는 적극성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인 노력을 멈출 때 이루어지기도 한다. 적극적인 노력은, 해체된 생각들을 비교함으로써 본질에 가까운지 아닌지를 재배열하는 노력이다. 문제라는 “나무의 줄기나 나무의 뿌리” 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성찰의 작업은 문제의 전체적인 형체를 드러내어 준다. 고준희는 마음과

생각을 ‘풀릴 때까지 적어내려’ 가곤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점차로 고민의 형체를 보게 되는데, 이 작업은 그에게 마치 나무의 뿌리와 줄기를 찾아 탐구하는 것과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무의 줄기나 나무의 뿌리를 캐야 되는데, 생각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나의 집중이 계속 뺏기는 것 같은 느낌? 줄기를 보지 못하고 뿌리를 보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적을 때 그게 형체가 드러나는 거 같애. 나무의 형체가. (고준희)

때때로 임시방편처럼 덮어두었던 고민들을 제대로 마주하기 위해서 며칠간의 피정을 다니곤 했던 한민영도 지나간 일과 현재의 일들을 하나씩 꺼내고 살펴보는 과정에서 ‘어떤 것이 본질인지’ 를 묻는다.

전체적으로 지나간 일들이라든지, 현재 내가 직면한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 걸으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앉아서 생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 사람한테 언짢았었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어디로 갈려고 하는지, 뭐가 중요한건지, 어떤 게 본질인지 이런 것들 질문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답처럼 톡톡탁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한민영)

앞서 제시한 적극적인 노력과는 사뭇 다르게, 때로는 적극적인 의도를 멈출 때에 가지치기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다. 고준희의 경우 일종의 이완의 시간인 산책을 하는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한 얽히고설킨 생각들은 자연환경과의 교차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완되어 핵심이 아닌 생각들은 자연스럽게 탈락되어 떨어져나가고, 핵심인 생각들만 단순하게 부각되는 경험을 하였다.

아. 오늘 날씨 좋다..하다가 이 생각하다가, 아 햇살이 너무 따뜻하다 하다가, 또 이 생각하다가, 어, 새소리도 나네 이러다가, 또 이 생각하다가, 기분이 좋아지고, 그냥 이렇게 생각이 좀 더 가벼워지는 걸 느끼는 거 같애. (고준희)

김중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잡으려는 노력을 멈춘 명상의 시간

동안, 생각이 떠오르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관조하는 자세로 문제를 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전과는 다른 느낌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근데 그걸 굳이 의식하지 않지만 조용히 앉아서 일단 호흡을 하면서 하면은 떠오르기도 해요 떠오르다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하다 보면은 그러한.. 빠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여전히 그 문제는 상존해 있지만 하지만 그걸 대하는 느낌이 달라지죠. 그 전에는 약간은 불가항력적인 약간 좀 압박으로 다가왔다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떨어뜨려 놓고 본다고 해야 하나? 관조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김종훈)

본질과 본질이 아닌 것을 구분해내려는 이러한 가지치기의 노력을 통해 이들은 이전에 이들이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의 구조를 허물고, 본질로 여기게 된 것을 중심으로 다시금 재조직하게 되었다. 이러한 재구성은 고민하던 주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반응 패턴의 학습으로 이어졌다.

4) 현 단계에서의 해결 : “그게 이제 해결이 돼 가는 단계...”

생각을 쏟아내기, 시각의 이동, 가지치기와 같은 앞선 과정들을 통해 엉켜있는 생각들이 풀어져서 새롭게 구성되고 나면, 체보자들은 현 단계에서는 해당 주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결의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매 고독마다 당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다. 주제에 따라서 단번의 시도로 현 단계에서의 해결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주제는 여러 차례, 오랜 기간의 시도가 필요하기도 하였다. 오랜 기간, 여러 차례의 시도가 요구되었던 경우에는 더 이상 고민을 진행할 수 없을 만큼의 지친 상태나 시간적인 한계가 그 원인이 되었다. 또한 주제에 따라 새로운 이해의 상태에 머무르기도 하였고, 행동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고민인 경우는 단번의 시도로 해결에 도달하기에 좋았다. 이민상의 경우, 관계에서 야기된 스트레스 상황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이전과는 다르게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게 되는, 일종의 해결단계에 도달하게 되었는데, 주제가 구체적인 상황이었다보니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의 앞으로의 대응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되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가능한 노력이 있을지, 혹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지에 대한 고민이 그것이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일이고, 벌어진 일이고, 해볼 수 없다면, 잊는..그러니까 좀 털어내는 거지. 그냥 여기서 끝. 여기서 더 나..내가 거기에 쓸 데 없는 관심, 그러니까 쓸데없는 에너지와 신경쓰임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지 말자. 딱 끝. 종료를 하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뭐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뭐를 어떤 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걸 같이 생각하기도 하는 거 같고, 어..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뭐 그런 거? 그런 거 까지 이제 가는 거 같애. (이민상)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은 때로 보다 깊은 차원의 고민을 건드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계와 관련된 사건은 때로, 정체성이나 성격의 문제를 흔들어놓기도 하는데, 자기 이해와 같은 보다 본질적인 차원의 고민들은 단번의 사유 과정을 통해 해결되기 어렵고, 보다 구분된 시간 동안 밀도 높은 집중을 요구한다.

그때그때 올라오는 내 안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연습을 하면서 다뤄내죠. 그래서 뭐 감정적인 반응이라든지, 또는 뭐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빨리 빨리 정돈이 돼요. 그래서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봤던 것들을 잘 기록을 해놔요. 대부분은. 그랬다가 이제 마스터 코스라든지, 워저드 코스라든지 이렇게 긴 기간, 저 자체가 복습을 하러 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그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었고, 이걸 어떻게 바꿔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현상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굉장히 깊숙한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나니까는 변화의 어떤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한민영)

이러한 본질적인 주제는, 사건들에 의해 촉발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실은 늘 마음속에 흐르고 있었다. 이러한 고민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때까지 자극을 받으면 올라와서 생각을 점령했다가, 어느 정도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여전히 미해결된 상태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를 반복한다.

2년? 3년? 2년째지 지금. 근데 그게(진로문제) 되게 인텐스 하게 하다가 답이 안 나오니까 포기하고, 그냥 있다가 또 어떤 계기로 이게 다시 올라와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인텐시브하게 고민하다가, 그게 이제 해결이 돼 가는 단계기는 해. (고준희)

여러 차례의 시도를 통해서이건 단번의 시도를 통해서이건, 주제에 따라 행동적 실천으로 보이건 아니건, 이들이 지향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의 해결이었다. 그 해결이라는 것은 “머리가 맑음해(고준희)” 지는 상태, 머리가 복잡하던 이전의 이해구조에서 벗어나 머리가 맑음하다고 느껴지는 새로운 이해구조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어떠한 주제들은 단번에 해결되기를 허락지 않았지만, 여러 번의 포기 끝에 현재의 어느 정도로 해결된 상태에까지 다다를 만큼 나아올 수 있었다.

2. 영성의 차원

인식의 차원에서의 과정을 통해 도달하게 된 평정의 상태는 영적인 차원이 작동하기에 좋은 상태이다. 잔잔한 호수와도 같은 이러한 상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을 완전히 분리하여 반사하는 상태가 아니다. 비워짐, 무념무상의 자리로 표현되는 이 차원은 오히려 이 맥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자신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차원이다.

영성의 차원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이 시간을 지배하는 목소리는 사유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자아의 소리와 절대자의 소리이다. 인식의 차원에서 작동하던 스스로의 생각을 이해해보려는 의지는 영성의 차원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잃게 된다. 이 차원에서는 판단과 평가가 중지된다. 자신의 노력을 거둔 영성의 차원에서 울려나는 목소리들은 강력한 힘을 가진다. 인식의 차원에서의 결정이나 정리가 스스로를 납득시키는 차원이었다면, 영성의 차원에서의 결정이나 정리는 이러한 이해의 경지를 넘어선다. 영성의 차원에서의 목소리들은 경험하는 이들의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받아들여지며, 일종의 감동으로 나타나는데, 일면 모호해 보이는 이러한 감동은 이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의 조직을 새로 짜는 구심점이 되었다. 그러나 영성의 차원은 개발되는 것이 필요한 차원이다. 이전에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영성의 차원은, 먼저 경험한 이들의 도움과 실질적인 경험으로 인해 이들에게 실재하는 차원이자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에 따라 어떠한 사태를 단순히 인지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대응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영성의 차원은 총 일곱 명의 제보자들 중에서 양희진, 한민영, 김상호, 고준희, 박동희의 다섯 제보자의 진술에서 드러났으며, 두 제보자에게서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1) 영감을 통한 성찰과 새로운 이해

영적인 차원은 철저히 믿음에 근거하여 작동한다. 영적인 차원에서는 인식의 차원에서의 작업을 진행하는 자아를 살피는 보다 높은 자아와, 절대자가 활동하는데, 이 둘 모두 믿음에 근거하여 존재한다. 우선, 더 높은 자아의 경우, 힘을 실어주어 실재하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자아의 존재를 자각하고 그 가능성을 인정하는 믿음에 근거한다. 박동희에게 있어 명상의 시간은 이러한 자아의 존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자, 높은 자아가 활동할 수 있는 고독의 한 부분이다.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2-3m정도 나를 객관적으로 띄워 놓고 나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하는 나 자신을 아예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게 아니고, 동희가 이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 생각이 아니고, 나라는 신체에 발생하는 제 3자의 생각처럼 그 생각의 주인을 요구하는 노력을 한 거 같아요. (박동희)

이러한 높은 자아는 스스로 ‘띄워 놓’을 때에만 존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 존재를 믿고 인식할 때, 높은 자아는 마치 제 3의 존재인 것처럼 등장하여 생각을 진행하고 있는 자기와 자신에게 흘러오는 생각을 바라본다.

높은 차원의 자아가 믿음을 통해 그 존재 근거를 얻었듯이, 절대자의 존재 또한 믿음에 근거한다. 이러한 믿음은 경험을 통해서 생겨난다.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이 인격적으로 만난 절대자는 경험하는 이에게 있어 그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완---전히 통곡을 하고,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처음으로 제가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정말 사람처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욕망이 막 스멀스멀 일어났구요, 2004년 제가 5월에 이걸 했잖아요? 6월, 7월 8월 9월, 10월 거의 11월까지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번 갔어요. (양희진)

이를 통해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에, 이 관계 안에서 절대자는 실제로 만날 수 있는 존재이고 만나고 싶은 존재로 여겨진다.

상대적으로 높은 어떤 힘의 가능성을 믿는 이 차원에서, 자아는 감정적인 동요나 인지적인 노력을 그친 평정의 상태를 보인다. 판단이나 평가를 중지한 이 차원의 자아는 영감이나 깨달음을 기다리는 자세가 된다.

이 피정의 집 들머리에 이 나무들 올라가는 길목에, 여기 예전에 돌덩이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 요기 앉아 갖구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주님 제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너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허—라고 제가 완전히 감동 받아 갖구 또 의심이 많기 때문에 주님 제가

누구라구요? 그랬더니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저는, 2005년 8월 마지막 주에 주님이 저한테 확실하게 빚어주셨고, 넌 내가 사랑하는 딸이지. 라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쟁쟁하게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제 정체성이 분명해 진 거예요. 저는 그 다음부터는 양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무슨 내 이름이 루시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A(직장)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딸이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한테 중요한 거는 너 누구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딸인 거예요. (양희진)

양희진은 묻고 잠잠히 대답이 오기를 기다렸다. 잠잠한 평정의 상태에서 잊을 수 없는 쟁쟁함으로 받은 영감은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다. 양희진은 이 생생하지만 추상적인 영감을 해석해나가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있었던 기존의 이해를 허물고 새로운 이해를 형성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있었던 중요한 면들, 가족 안에서의 위치나 직장에서의 위치 등은 “주님이 사랑하는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중심으로 재해석되고 통합되어갔다.

이러한 영감은 동시에 언제나 깨질 준비가 되어있는 깨달음이다. 이들은 현재 단계에서의 영감에 대한 해석이 얼마든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새로운 영감이 기존의 이해를 해체하고 새로운 이해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준희는 절대자가 이끄는 일련의 과정 끝에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얼마든지 곧 다시 고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어..잘은 모르겠지만은 어떤 한 길이 나타난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결이 돼 가고 있기는 하지. 학교를 가면은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고민이 또 시작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우선 한 스텝을 가기 위한 고민은 이제..(고준희)

이러한 유연함은 절대자에 대한 신뢰 덕분에 더욱 자리를 잡아가지도 한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씩 절대자가 자신을 인도해간다는 믿음은, 새로운 깨달음에 대한 열린 자세를 견지하게 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다.

주님도 단계적으로 학습시키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부터 애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생각하게 해 주시는 거죠. 야, 니 피붙이잖아 니 피붙이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니가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평평 울면서 그렇지.. 그러면 그럴 때는 일곱 번에 일흔 번씩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는다든가 애를 들면 꼭 그런 거예요. (양희진)

아이러니하게도 스스로의 노력을 그치고 잠잠히 기다리기로 할 때 얻어지는 영감은 인지적 차원의 이해를 넘어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짐으로써 기존에 당연하게 형성하고 있었던 어떤 이해의 구조를 새롭게 성찰하고 구조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었다. 또한 영감이 가지는 추상성에 근거한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과 절대자의 존재는 이들을 새로운 학습에 더욱 유연하게 반응하도록 하였다.

2) 무의식으로의 성찰의 범위 확장

영성의 차원에서는 인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의식 뿐 아니라 마음의 대부분이 속한 무의식까지도 동원된다. 제보자들은 영성의 차원에서 고독의 맥락을 경험할 때, 의식의 차원으로 떠올려진 경험들 뿐 아니라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경험들까지를 대상으로 열어두었다. 앞서 언급한 영감은 전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제보자들이 이미 의식의 차원에든 무의식의 차원에든 내재하고 있는 경험들이 예상치 못하게 떠오르거나, 예상치 못한 조합으로 드러나는 방식으로 주어졌다.

진리가 떠오르고 나서, 진리에 대한 이해함이 생기고, 그 이해함이 음..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나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이해함에 따라서 나의 감정이 북받쳐오를 때도 있고, 안 그럼 그 이해함에 꼬리를 물고 다른 질문을 하나님한테 할 수도 있고. 그거와 연계된?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또 다시 응답을 듣고, 그런 식으

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때도 있고. (고준희)

고준희는 절대자가 말씀해주시기를 기다릴 때 진리가 떠오른다고 말한다. 여기서의 진리란 고준희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읽은 성경의 구절이나 그 해석, 혹은 경험의 단면이었다. 무의식의 저변에 가라앉아있던 진리는, 잔잔한 호수와의 같은 기다림의 상태에 툭툭 솟아오른다.

제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덕수궁 앞이에요, 어떤 모양이냐면요, 예전에 그..여기가 덕수궁이에요. 여기가 덕수궁인데, (종이를 들고 오심) 여기가 덕수궁이 있구요, 여기가 이제 성공회 성당이 있구요, 여기 서울시의회있구요, 여기 코리아나호텔이 있죠. 여기가 덕수궁 돌담..예전에 여기 파출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여기가 프라자호텔이에요. 그쵸? 여기가 서울광장이구. 이제 생겼는데, 그 때까지만 해도 이게 막 서울광장이 그렇게 저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딴냐면 여기 딱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밤이예요. 제가 기도 속에서 보는 거예요. 한 밤에 제가 여기 서 있다가 오들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깊은 밤이예요. 한 두세 시정도 되는. 깊은 밤에 제가, 제가 혼자 오들오들떨고 있는 거예요. 그..수녀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게 첫 경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막 차들이 뿡뿡 지나다녀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앞으로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아무데로도 갈 수가 없고 차는 막 왔다갔다하지 막 공포에 싸여가지고 여기 있는데, 어 막 공포에 있는데, 누군가가 제 세례명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가 빛이라는 뜻이에요. 러시아야 라고 부르는거예요 누군가가. 어머 내가 누굴 부르지?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다라고 이렇게 돌아봤는데 여기 파출소 앞에 어떤 분이 서계세요. 그래서 이 분이 저한테 러시아야러시아야 러시아를 자꾸 불러요.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 예수님? 이랬어요 제가. 너무 놀래갔고. 그랬드니 예수님이 어, 나 예수다. 너 얼렁 건너와라. 너 나 있는 데로 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어떻게 건너가요. 이 차들이 다니는데 저 무서워서 못 건너가요. 그랬드니 봐라 그 옆에 횡단보도가 있잖니 했드니 보니까 횡, 횡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못 건너가는 거예요. 어머 그래도 무서워요 예수님 그랬드니 예수님이요, 그럼 기다려라 내가 가마. 저는요, 내가 가마, 너는 그 자리에 고대로 있어라예요. 내가 가겠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드니 제가, 너무나 무서워갖고, 서 있지도 못한 거예요, 다리가 후들 떨려갖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었더니 저를 일으켜서 저를 딱 안아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통곡을 하고, 아, 이게 예수님이구나 처음으로 제가 인격으로 만난 거예요. 정말 사람처럼 만난 거예요. (양희진)

양희진의 이 생생한 영적인 체험 또한 하나하나의 요소를 따져보면 양희진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니다. 덕수궁 앞, 시의회, 프라자 호텔과 같은 구체적인 이미지, 밤, 공포, 놀람의 추상적인 이미지들까지 이러한 이미지 각각은 양희진의 무의식 속에 이미 학습되어 있는 경험들이다. 그런데 기다림의 기도라 불리는 관상기도 중에 떠오른 영감은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있던 이 모든 경험들이 총체적으로 움직여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혼자 그리고.. 그럴.. 여행 가서도 그런 경향이 있기는 한데, 그 시간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누군가한테 말을 걸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생각들이 떠오르다가, 계속 생각들이 엄청 떠올라요. 그런데 그 시간동안 명상이나 그런 것들하고는 달라서 흘러보내진 않아요 스스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그냥 눈 감고 혼자 앉아 있으면은 그게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건데 그렇게 차에 앉았을 때면 계속해서 막 멍돌아요. 그런 생각들이. 멍돌고 멍돌다가 가끔씩 어떤 생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감정이든 생각이든 그렇게 바뀌어서 막 이렇게 나오.. 가끔씩은 괜찮은 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좀 구조가 달라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뭐 대체로 그런 것 같아요. (김종훈)

김종훈에게 있어서는 혼자 여행을 가는 버스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자신의 힘을 빼놓는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애쓰기를 그치고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때, 김종훈의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 있던 다양한 경험들은 움직이기를 시작하며, 이전과는 다른 관계성으로 연결되기도 한

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있어 숨겨진 창조성을 자극하는 영감으로 여겨졌다.

3) 영적 감수성의 성장

영성에 대한 자각, 다시 말해 높은 자아나 절대자의 존재를 인식하는 능력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의 과정은 영성의 차원을 경험한 다섯 제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모습이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높은 자아와 절대자는 전적으로 믿음에 근거하여 존재한다. 따라서, 영성의 시각으로 현실의 문제를 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며, 반드시 영성의 안목을 자각하고 그 안목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양희진의 경우, 영적인 체험을 통해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고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기 시작하면서도, 이러한 안목을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다. 이때 영적인 스승의 조언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니까 제가 제 삶에서 나온 문제를 이야기 하면 제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시나 하면 기도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러니 저는 일상을 이야기 하잖아요 일상의 도움을 구하면 이분들은 영적으로 풀어주시는 거예요. (양희진)

스승들은 양희진이 홀로서기가 가능해질 때까지 양희진이 삶에서 마주하게 되는 일들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풀어 이야기해주었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양희진은 점차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져갔다. 영안이라고 표현된 이러한 영적인 안목은 스승들의 도움과 자신이 경험한 극적인 감정적 변화를 통해 빚어져갔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보잘 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안이 뜨이니까 그런 사람도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전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면 들어오구요 막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와서 저를 흥분하

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선생님. (양희진)

영적인 안목이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일상의 모든 삶을 영적인 눈으로만 보는 것은 쉽지만은 않았다. “민감함” 이라고 표현된 상태, 다시 말해 영적인 감수성이 충분히 작동할 때는 상황들에 대해서 절대자와 높은 자아만이 가질 수 있는 영성의 차원의 고독을 찾지만, 민감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풀어보려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주로 인식의 차원에서의 노력에 가깝다.

이전에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나갔는데,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그 때는 이제 기도를 하지. 영적으로 둔감할 때는 이제 내 의지로 뭔가 이렇게 할려고 산책 나가고 그러는 거 같애. (고준희)

따라서 영적인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때로 훈련이나 연습과 같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기도 하다. 영적인 감수성은 경험을 통해 점차 길러지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지적인 노력으로 그 성장의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하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생각이 완전 비어지는 그런 연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 제가 이제 저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게 된 순간에는, 지금도 제가 8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도 그 기억이 안 잊어져요. 너무 선명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생각에 빠져있거나 멍청하게 있지 않는 이상은 항상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사물을 지각을 해요. 그니까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되어버린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한민영)

한민영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비우는 연습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그는 하루 중에도 수시로 이러한 연습을 함으로써 영적인 감수성을 고무시킨다. 한민영 뿐 아니라, 박동희 또한 “한 번 더 이 상태에서 떨어져서 바라보는 훈련” 을 통해 보다 높은 차원의 자아라는 안목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었다.

3. 감정의 차원

매일 아침의 묵상이나 기도, 명상의 시간처럼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 이전 혹은 그러한 습관에 따라 찾는 고독의 맥락이 아닐 때에, 감정의 차원은 두드러지게 앞선 두 차원의 과정, 인식의 차원과 영성의 차원에서의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물론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을 때에도 감정의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역할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감정의 역할은 모든 제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고독의 맥락을 찾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불편한 마음을 편하게 하는 데에 있었다. 불편감을 인지하고, 이러한 불편감을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선택되는 고독의 맥락은, 앞서 언급한 인식의 차원과 영성의 차원을 경험하면서 해소되는데, 이러한 해소는 고독의 맥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감정의 차원은 마치 직관과도 같아서 명확한 인지적 이해 이전에 작동하는 신호와도 같다. 일생이라는 맥락에서 반복되는 고독의 맥락은, 오래된 정서적 문제들을 치유하는 장이 되기도 하며, 감정의 영역을 직면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일부 제보자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적응이 필요한 차원이기도 하였다.

1) 인식적 차원과 영적 차원의 성찰과 재구성의 과정을 이끄는 감정변화

고독의 맥락에 있어서 감정의 영역은 그 시작과 진행, 마무리의 전 과정을 이끄는 역할을 한다. 주로 고독의 맥락을 찾게 되는 계기는 제보자들이 경험하는 불편감에서 시작되었다. 부대낌, 불편감으로 표현된 부정적인 느낌은, 인지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것 보다 오히려 빠르고 정확하였다. 제보자들은 이러한 부대낌을 덮어두기 보다는 직면하기를 택하였다.

그걸 치열한 고민까진 아닐지 모르지만 제가 이 문제가 있음 저는 부대낌에 대한 민감성은 있어요. 이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열망 이런 건 있는 사람 이에요. (양희진)

양희진이 가지고 있는 부대낌에 대한 민감성은 부대낌을 주는 상황을 문제 상황으로 주목하게 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욕구와 욕망으로 이어진다. 부대낌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는 상황을 아직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보자들 사이에서 자주 선택되는 맥락이 고독이었다.

이러한 부대낌은 고독의 맥락에서 부대낌을 야기한 여러 가지 상황과 그와 연관된 생각과 감정들을 쏟아내는 과정 동안 일정부분 해소가 된다. 해결되지 않은 채 영켜있는 느낌은 불쾌감을 유발하는데, 이러한 불쾌감은 쏟아내는 작업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한번 시작을 하니깐 점점 더 쉬워지고, 점점 더 솔직해지고, 그러면서 더 편해졌어 마음이. 그게 더 좋은 거 같애.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 전에 그렇게 적어놓고도 후련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후련해. 되게 말끔해. 머리가 되게 말끔한 거 같고 (고준희)

특히 고준희에게 있어서 감정의 영역은 솔직하게 쏟아내기에 가장 어려웠던 영역이었는데, 점차로 감정까지도 쏟아낼 수 있게 되어가면서 이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진정한 후련함과 말끔함을 경험하게 된다.

문제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생각들이 복잡할 때 경험하는 불쾌감,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감정들이 쏟아져 나올 때 경험하는 후련함이나 편안함은 대부분의 제보자가 경험하는 바이었지만, 그 다음의 감정의 흐름은 고민이 정리되어가는 방향에 따라서 한 제보자에게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고, 그 해결이 그렇게 요원해 보이지 않을 때에는 감정적인 편안함으로 마무리가 된다.

암튼 그냥 그 문제되는 나에게 그런..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좀..이렇게 좀 진단을 한다고 해야 되나? 좀 보면서, 이렇게..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내가 있구나, 이렇게 한 번 보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지. (이민상)

고민하던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해에 도달한 이민상의 이 경우에는 이전보다 감정적인 동요가 적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고민의 맥락이 마무리된다. 그러나 단번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로 고독의 맥락을 보내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렇게 안정적인 상태로 고독의 맥락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정적으로 지쳐서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빠져나오기로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넘어갈 때는 내 생각에는 나를 아무리 분석해봤자 답을 모르겠는거야. 그래서 그냥 포기..하다 지쳤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렇다면은..그냥 다른 방법을 찾은 거 같애. 되게 그냥 intuitive 한 거 같애. 내 past 경험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잘했나, 아니면 애네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 내가 꼭 아 굳이 나의 경험들을 한 번 살펴볼까?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갔던 거 같애. 그리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갈 때 소명에 대한 정의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아무리 고민해봤자..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봤자 답이 나오지 않는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이해가 된 거 같애. 왜냐면은 나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은 나의 목적을 알 수가 없잖아. (고준희)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독의 맥락을 빠져나오기를 수차례, 지칠 법도 한데, 고준희는 고독의 맥락을 포기하지 않는다. 지친 정서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다시금 상황이 해당 주제를 건드릴 때, 다시금 고독의 맥락으로 들어가 고민하기를 반복한다. 고독의 맥락은 그것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되건 부정적인 감정으로 마무리되건, 감정적인 불편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찾게 되는 맥락이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저 자신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향이 조금 더 있는 스타일이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 자신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하루의 일을 생각하고 정리하게 되고, 왜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생각해 보고,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 문제가 생기면 담배를 피는 것도 아니고, 술로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을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동희)

요컨대, 감정의 변화는 고독의 맥락의 시작과 마무리를 이끄는 요인이었다. 정서의 차원은 고독의 맥락에 작동하는 인식과 영성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신호기제와도 같은 것이었다.

2) 성찰과 재구성을 통한 정서적 치유

감정의 영역은 고독의 맥락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이끌기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성찰과 재직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체보자들은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태, 자신 주변의 관계들에 대해서 일종의 감정을 품고 있었는데, 이러한 감정은 감정자체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야기한 원인이 되는 사건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감정인 경우, 이러한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신에 대한 특정 감정을 야기하는 원인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반복해서 특정 감정이 일어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이러한 패턴은, 고독의 맥락에서 비로소 해체되고 성찰되었다.

그.. 그니까. 뭐 하여튼 저하고 바닥 어딘가에 내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이런 생각이..아, 이게 두려움의 정체였구나. 딱 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통쾌한 거예요? 해서 그거를 하고 그 하여튼 몇 년을 내가 그걸 해결 할려고 애를 썼는데도 잘못됐는데, 그 안의 내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걸 알고 나니까는 너무 편안해지고, 그리고는 멈추는 거 없이 정말 끝까지 가게 됐어

요. (한민영)

한민영은, 오랫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있었는데, 이러한 두려움은 홀로 있는 시간이 깊어질 때마다 반복해서 일어났다. 오랫동안의 해묵은 과제였던 두려움은, 두려움을 야기했던 어린 시절의 사건을 찾아 그 사건으로 인해 형성해내게 된 신념의 체계를 성찰하고 지금 느끼는 감정과 분리해내게 되면서 비로소 해결되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맘에 안 들었어요. 제가 힘든 부분은 제가 맘에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대낌이 있었어요. 뭔가 저는 다르게 살아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점점 제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나 괜찮지 뭐, 왜? 주님이 날 사랑하는 딸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괜찮아야지 내가 괜찮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프실 거 아녜요. (양희진)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 다시 말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양희진은, 고독의 맥락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해당 감정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보였다. 그가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은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에 현재의 상태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데, 절대자로부터 받은 “사랑하는 딸”로서의 정체성은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를 점차 흔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 기대에 기반해 형성되어 있는 현재 상태의 진단과 그에 따른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감정 사이의 관계 또한 이완되었고, 절대자를 통해 확인된 스스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중심으로 사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그에 걸맞은 감정이 이전의 패턴을 대체하게 되었다.

아....후련하지 (감탄사). 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 같애. 감정이 이렇게..엄마들이 애기를 이렇게 포옥 안아주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들 때도 있고, 잔잔한 호수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고, (고준희)

고준희는 자신의 감정과 그 감정과 연결된 생각들을 쏟아놓고 닳을 때 비

로소 감정이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다. 쏟아내는 과정을 통해 감정과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던 생각들은 유연하게 풀어질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상황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위로를 받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상에서는 감정적으로 언짢거나, 불편하거나 때로는 화도 나가거나 그렇다고 하면, 지금은 그런 감정적인 거 하고는 조금 떨어져서, 바깥에서 보게 되는 거죠. 책의 한 장면을 보듯이 내가 있었던 일들을 그렇게. 그럴 때에는 감정적인 동요나 그런 게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좀 속상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러면 또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지려고 해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을 겪고 나면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그런 언짢음이나 이런 데서 제가 좀 편안해지는 그런 시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 같아요. (한민영)

이러한 유연함은 한민영에게는 “책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다. 책을 보는 것처럼 감정적인 동요와 그와 얽혀있는 모든 사태와 생각들을 펼쳐놓고 보는 작업을 통해 그는 “편안해”진다. 사태 자체의 변화는 없을지언정, 그 사태를 둘러싼 생각과 감정이 새롭게 직조되면서 처음의 언짢은 감정에서 놓여나는 것이다.

감정의 영역은 그것이 독자적인 감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관련된 사태와 그로 인해 파생된 생각들의 복합체이다. 특히 지배적인 감정인 경우에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 오기 때문에, 제보자들 스스로도 처음에는 그 원인을 모른 채, 해당 정서적 문제에 시달렸다. 일상의 흐름에서 떨어져 나온 고독의 맥락에서야 비로소 이러한 감정들은 주목을 받을 수 있었고, 드러나는 감정 아래에 숨어있던 더 큰 구조를 해체하고 새롭게 직조함으로써 감정의 패턴을 새로 쓰는 일이 가능했다.

3) “점점 더 직설적”인 방향으로의 정서적 감수성의 성장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에 따라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

기도 하였다. 형성되어 온 성격과 자라온 환경에 따라, 사람마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의 정도에 차이를 보인다. 고독의 맥락은, 일상 속에서 억압 혹은 자제되기 쉬운 감정의 영역이 부담으로부터 놓여나는 맥락으로, 자신의 감정에 대해 크게 주목하지 않아왔던 사람들은 초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본 연구의 제보자 중, 고준희와 이민상은 고독의 맥락 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었다. 고준희는 자신 이외에는 누구도 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았지만, 처음에 감정을 꺼내어 놓을 때 굳이 암호화하여 기록하였다. 그저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끄럽게 여겨졌으며, 자신의 감정을 기록한다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큰 도전이었다.

일부러 처음에 쓸 때 약간 암호화? 시켜가지고, 그 때 이 단어를 보면 아 내가 이 느낌이었구나 라고 얘기할 수,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스위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해 놓고, 내가 읽었을 때, 아 이 단어만 보고도 내가 그 때 어떤 감정이었겠구나 라고 추측해볼 수 있게끔 쓰다가 이제는 점점 직접 이렇게 직감적으로 직감적으로? 직설적으로 점점 더 직설적으로 쓰게 되는 거 같더라고. (고준희)

그러나 반복되는 고독의 경험을 통해, 그녀는 점차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편안해진다. 이는 자신의 감정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자신의 감정으로 인정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모든 감정을 포용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중요한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편안해지면서 그 표현의 그물이 촘촘해지고,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자신의 감정들을 잘 길어 올릴 수 있게 되어감에 따라, 그녀는 후련함을 맛보게 된다.

그 전에 그렇게 적어놓고도 후련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이제는 후련해. 되게 말끔해. 머리가 되게 말끔한 거 같고 (고준희)

고준희와 마찬가지로 이민상 역시, 자신이 감정의 영역이 취약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마음의 역동인 감정으로 연결되는 감성에 자신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고독의 맥락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자신에게 있어서 감성은 타고나

지 않은 것으로, 후천적인 개발이 필요한 영역이었다. 고독의 맥락은 이러한 후천적인 노력의 필요를 그에게 일깨워주었고, 이러한 노력의 실천이 가능한 장이 되어주었다.

사람이 이성과 감성.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균형 잡힌 게. 남성성 있고, 여성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균형 잡히게 발달이..발달이 돼야, 난 그거를 굉장히 굉장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그런 내가 없는 그런 부분들을 후천적으로나마 좀 타고나질 않았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키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이민상)

비록 모든 제보자들에게서 발견된 발견점은 아닐지라도, 스스로 감정적인 영역이 발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 적응과 개발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은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제보자들의 경험에 있어서 감정의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4. 소결

고독의 맥락에서 제보자들은 세 가지 차원의 경험을 하였다. 우선 인식의 차원에서는 일상을 살면서 엉킨 채로 가지고 있던 경험의 구조들을 쏟아놓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선으로 옮겨가며 주제나 사태를 이해하고 조망하는 시선의 이동과, 고민의 핵심과 핵심이 아닌 것들을 분리해내는 성찰의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성찰은, 이들이 기존에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패턴을 형성하던 경험들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재구성은 사태에 반응하는 새로운 패턴의 학습이라고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의 재구조화는 제보자들에게 일종의 해결로 여겨졌다. 때때로 이러한 정리된 상태에서 제보자들은 영성의 차원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인식의 차원에서는 행동하고 반응하는 자신

을 성찰하는 1차적 차원의 성찰적 자아가 활동했다면, 영성의 차원에서는 1차적 차원에서 성찰하는 자아를 다시 성찰하는 2차적 차원의 성찰적 자아, 그리고 절대자가 등장한다. 2차적 차원의 성찰적 자아와 절대자는 믿음에 근거하여 존재하며, 어느 정도 활동성을 보였던 1차적 차원의 성찰적 자아와는 달리, 주로 판단을 중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판단중지의 상태 가운데, 이들의 삶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통찰을 주는 영감이 떠오르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감은 제보자들이 현재의 나라는 패턴을 해체하여 새로운 패턴을 형성하는 중심축으로 역할 하였다. 인식의 차원과 영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고독의 맥락에 있어서 정서적 차원은 일종의 신호기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데, 제보자들은 때로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이전에 이미 정서적인 반응에 근거한 직관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오랜 기간 동안 제보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서적인 문제는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하는 정지-쏟아냄-성찰-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정서로 표상된 문제와 함께 패턴화되어 있던 경험들을 성찰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이를 통하여 정서와 경험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면서 치유되기도 하였다.

V. 체화 : 일상을 고독으로 살아내기

1. 일상과 고독 사이에서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되는 세 가지 차원에서의 과정은 일상의 맥락과의 관련 속에서 체보자들의 삶에 자리를 잡아나갔다. 체보자들의 전체 삶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일상과 고독은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며 이들의 전체 삶을 이루어나갔다. 한편,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들은 상당히 영리하고 활발하게 양 쪽 맥락을 오가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다. 일상과 고독, 그리고 양쪽 맥락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자발적인 주체의 모습은 본 연구의 모든 체보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였다.

1) 일상과 고독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

일상의 맥락과 고독의 맥락은 서로 반대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며, 고독의 맥락에서만 삶을 영위한다는 것은 특별한 몇몇 사람들 이외에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신의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에 노출되며, 기존의 경험들이 구성하고 있는 경험들의 구조는 이러한 새로운 경험과 상호작용하며 굴러간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경험의 구조와 새로운 경험 사이의 자동에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 어떠한 경험들은 체보자들의 내면에 “답답함”의 형태로 늘 잠재되어 있는 고민이나 문제들을 자극하여 인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체보자들의 주목을 끈 고민이나 문제들은 고독의 맥락을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일상과 고독의 상호보완적 교차는 본 연구 체보자들의 삶이 꾸려져 가는 중요한 모습이였다. 김종훈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중에 고민을 안고 있었는데, 이러한 고민들은 때때로 상황적 자

극에 맞물려 떠올라, 그를 생각 속으로 몰입시켰다.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이 있었고 그것이 평소에 저도 모르게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고. 가끔 책을 읽다가도 그게 문득 떠오를 때도 있고, 그럴 때는 다시 생각하면서 그게 쌓였다가 이렇게 걸어오면서 하나씩 맞추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김종훈)

덧붙여, 일상생활의 배경이 되는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는 고독의 맥락에도 활력을 준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경험한 새로운 것들은 비단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고민들을 일깨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의 맥락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가 되기도 하였다. 고준희의 경험은 고독과 일상 사이의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을 통해 얻게 된 지식이나 정보들은, 고준희가 그 후에 경험하는 고독의 맥락에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말해, 일상의 맥락을 경험한 전과 후에 고독의 맥락에 있는 고준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소재에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 고독의 맥락에서 고민했던 것과 같은 주제를 고민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정보와 접근방식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새로운 정보라고 해야 되겠나? 어떤 그 새로운 깨달음들이 나를 되게... 빛어가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는 거 같애. 그게 이제 나의 생각의 흐름에도 이제 접근방식이나 생각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고준희)

일상의 맥락에서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고 따로 고독의 맥락을 필요로 하였던 주제들은 대부분 고민을 하는 주체에게 매우 중요한 영역이었다. 고독의 맥락은 이러한 주제에 대한 작업이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었는데, 이러한 주제에 대한 멈춤-쏟아냄-성찰-재구성의 과정을 통해 재구조화된 경험의 구조는 다시금 그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 영향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었던 것은 고민하던 사태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대응하는 패턴의 변화로도 이어졌다. 양희진에게 있어서 캠프를 진행할 때

마다 발생하는 사고는 심각한 트라우마였는데, 또 다시 벌어진 사고 앞에서 밤새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동안 그녀는 이 사태를 바라보는 다른 이해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 사태에 대해서도 이전과는 다른 감사의 반응을 보이게 되었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그날 밤에 잠을 한-숨도 못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야..이 캠프를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캠프 니가 했니, 내가 한 거지. 야-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무릎 딱 꿇고, 아우. 주님 제가 그르케 중요한 걸 그렇게 중요한 걸 놓치고 제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이 교만한 착각. 용서하여주십시오 하고 그 다음날 교회 가서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미리 감사하는 법을 그 때 배웠구요 (양희진)

주제에 따라서는 고독의 맥락을 통해 얻어진 관점의 변화가 실질적인 행동의 실천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들에 대해서 늘 고민을 가지고 있는 김종훈은, 고독의 맥락을 통한 관점의 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심을 실제로 실천해나갔다.

그러면서 좀 더 관점을 바꾸었고. 일단 더욱 더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좀 여러 가지 대안들. 제 주류쪽 공부들,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마음을 먹었던 것도 있구요. 그러면서 책들을 많이 읽은 건 아니지만 조금 조금씩 계속 읽어 나가고 있는 거구요. (김종훈)

고독의 맥락과 일상의 맥락의 상호보완적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처음부터 평등한 관계로 형성되지는 않는다. 고독의 맥락보다는 일상의 맥락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러운 만큼, 일반적으로는 일상의 맥락이 사람들의 삶에 가지는 힘이 훨씬 더 크다. 쉽 없이 돌아가는 바퀴와도 같은 일상의 맥락은 그 반대편에 있는 고독의 맥락에 쉽사리 접근할 수 없게 한다. 어떠한 계기가 없이는, 접근하더라도 여유 있게 그 맥락에 머무르기가 쉽지 않다. 한민영의 일상에 대한 언급은 제보자들의 이러한 처지를 축약

적으로 드러내어준다.

아무 것도 안 하는 걸 한 번 연습을 했죠. 뭔가를 계속 하면서 살았으니까.
가만-히 있는 걸 한 번 해봐...나만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조용해진다. (한민영)

그러나 일단 고독의 맥락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제보자들의 삶에서 고독의 맥락이 차지하는 정도가 점차로 늘어난다. 고독에 매력을 크게 느낀 두 제보자에게서는 일상을 압도할 만큼의 큰 영향력이 보이기도 하였다. 양희진과 한민영은, 고독의 맥락을 경험하기 시작한 초기에, 남다른 노력과 마음을 쏟는 모습을 보였다. 양희진은, 이러한 당시의 모습이 “첫 사랑에 눈을 뜬” 것 같았다고 회상하였다.

그래서 제가 제 역사를 정리할 때 첫 사랑에 눈을 뜬 시기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들떠서 토요일에 일 있으면 신경질 부리구요, 통합을 못 시킨 거죠. 하느님 만나느라 일을 소홀히 할 정도로 하나님 만나느라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다녔어요 1년 넘게. (양희진)

이러한 남다른 노력은 시간이 지나고 고독의 맥락이 익숙해짐에 따라 일상의 맥락과 일종의 화해가 이루어지며, 균형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2) 일상과 고독 사이를 넘나드는 영리한 주체

제보자들은 일상과 고독 사이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영리하게 넘나들었다. 고독의 맥락이 점차로 익숙해지고, 특정 주제들에 있어서는 이 맥락이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제보자들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도 필요에 따라 이 맥락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과정은 수면 아래와 수면 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수영의 장면과도 흡사했다.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고독의 맥락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흐름을 점검하는 일종의 징검다리와의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제보자들은 자신의 인생

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이 살아내고 있는 일생을 큰 그림을 가지고 살고 싶어했다. 이러한 이들에게 있어서 고독의 맥락은 일상의 하루하루가 그냥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는 맥락이었다. 숲과 나무에 빗대자면, 일상의 삶에 집중하는 것은 나무에 주목하게 되는 것에 가깝고, 일생을 염두에 두는 것은 숲을 보는 것에 가까운데, 고독의 맥락은 일생을 염두에 두고 일상을 조망하여 보는 맥락이다. 이러한 고독의 맥락은 제보자들에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흘러가는 일상의 변화에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를 그치는 일종의 징검다리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고독의 맥락이 삶을 “한 번씩 끊어가는” 계기가 된다는 이민상의 제보에서 잘 드러난다.

이제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한 번씩 끊어가니까, 뭐랄까..훨씬..중간 중간 그냥 뭐 딱히 그렇게 뭐 이렇게 뭐 정리한다는 느낌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냥 그냥. 그런 정리. 뭐 딱 한 번씩, 그 한 주를 딱 정리하고, 새로 한 주를 맞이한다..라는 고런 느낌이 있어. 뭐. (이민상)

징검다리와 같은 고독의 맥락은, 인생이라는 긴 방향성에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제보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였는데, 고독의 맥락은 이러한 방향성 자체를 점검하는 시간이자, 지금 현재 자신이 이러한 방향성 위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해있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김종훈은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이러한 역할을 잘 보여주었다. 그는 고독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삶의 환경에 비추어 자신의 삶에 대한 결심들을 돌아보고 수정해갔다. 그에게 일상의 존재는 이미 당연한 것이었고, 문제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변화들 속에서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생각의 정리와 구체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였다. 여기에는 고독의 맥락이 제격이었다.

기록을 일 년에 한 두 번씩 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반적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길진 않지만 짧게라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다라는 게 적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다시 한 번 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를 고민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가졌던 그 고민이 크게 나쁘지 않은 논리 구조에서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 지금 환경이 크게 바뀌지 않았으면 그대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글을 쪽 진행한 거구요. 만약에 환경이 바뀌었다. 조건이 바뀌었으면 좀 더 수정해서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정리하고 생각하고, 생각을 좀 구체화해서 나가는 편이거든요. (김중훈)

고독의 맥락은 한 번 경험하고 마는 맥락이 아니라 일상을 영위해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선택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맥락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시간성도 존재한다. 일상의 맥락과 고독의 맥락을 번갈아 오가는 주체는 그 다음의 일상의 맥락에도, 또 그 다음의 고독의 맥락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성장한 주체이다. 일상의 맥락을 경험하면서 변화를 경험한 자기가 고독의 맥락을 찾는다는 고준희의 말은 이러한 고독과 일상 사이의 시간성과 그에 따른 성장을 잘 보여준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정보라고 해야 되겠나? 어떤 그 새로운 깨달음들이 나를 되게...빛어가고 있다? 만들어가고 있다?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는 거 같애. 그게 이제 나의 생각의 흐름에도 이제 접근방식이나 생각의 흐름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계속 새로운 정보가 주입이 되거든. 그 새로운 정보에 반응을 하고 (고준희)

제보자들은 인생이라는 성장을 향한 축에서 성장을 위해, 또한 성장을 거듭하며 일상과 고독의 맥락을 넘나들었다. 이들은 영킨 경험의 구조가 야기한 과부하에 떠밀려 고독의 맥락을 택하던 초기의 모습에서 벗어나 점차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성장을 위해 양쪽 맥락을 영리하게 선택적으로 사용하게끔 되어갔다.

2. 일상과 고독의 통합

고독의 맥락이 익숙해짐에 따라, 고독과 일상은 점차로 통합되어간다. 자발적으로 홀로 있기를 선택하는 초기에는 이 맥락자체가 익숙한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 고독의 맥락이 일상에게 방해를 받기 쉽다. 그러나 차츰 고독의 맥락에서 핵심적으로 작동하는 성찰적 자아가 견고해지면서부터는 굳이 물리적인 공간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특히, 영성을 통해 발달하는 2차적 성찰자아는 사태에 대한 새로운 안목의 가능성을 견지하게 도와주어, 일상과 고독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찰적 자아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일상을 살면서도, 그 일상이 새로운 안목으로 매 순간 조망되는 고독의 맥락을 함께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의 제보자들 중 양희진과 한민영은 이러한 통합이 완성되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고준희와 박동희는 이러한 삶의 양식이 형성되어가는 단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독과 일상의 통합이 이미 완성되어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은 두 제보자와 형성되어가는 단계에 있는 두 제보자 사이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연령으로, 30대 초중반인 고준희와 박동희에 비해 양희진과 한민영은 둘 다 40대 중후반으로 인생의 굴곡을 포함하여 풍부한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는 양희진과 한민영은 기도법이나 마음 수련법과 같이 체계적인 방법적인 틀을 경험한 적이 있고, 이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고, 고준희와 박동희는 이러한 틀을 체계적으로 경험한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1) 일상과 고독이 통합되는 과정

고독의 맥락에 익숙해진 일부 제보자들은, 각기 다른 계기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고독의 맥락을 통합해가기 시작한다. 이러한 통합은 일부 제보자들에게는 아직 갈 길이 먼 단계였지만, 일부 제보자들의 삶에서는 이미

이러한 통합을 찾아볼 수 있었다. 양희진은 삶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기도나 피정과 같은 신앙생활이 자신의 일상적인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 일종의 계기로 작동하였다.

그런 경험들이 많은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저에게 마을 주시고 제가 그걸 실천하잖아요 그럼 바로 현실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한테 감동 받지 말아라 주님이 나한테 하시라는 대로 했을 뿐이다. 전 이게 통합인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제 기도가 바로 연결되는 것. 실질적으로.
(양희진)

이러한 계기 중에서도 집중적으로 자신의 의도가 아니라 절대자의 의도로 절대자의 시각을 가지고 살게 되었던 1년간의 경험은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자신의 눈이 아니라 절대자의 눈을 투영하여 상황을 보게 되는 경험은, 일상과 고독을 통합하는 강력한 고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안이 뜨이니 까 그런 사람도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전혀 제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길거리를 가면 들어 오구요 막 정의롭지 못한 것들이 제 눈에 들어와서 저를 흥분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양희진)

이러한 과정에서 절대자와의 관계 또한 큰 역할을 하였다. 멀게만 느껴졌던 절대자가 점차로 자신의 마음에 굳게 자리를 잡게 되면서,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순간에도 자신이 절대자와 함께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러한 자각은 그에게,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고독의 환경을 제공해주었다.

뭐 지금도 제가 뭐 주인이라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양희진이 주인이었던 곳에, 예수님이 문 뚫어주고 들어오셨다가, 점점 점점 저를 밀어내시더니 이제는 이제 누워서 계시는 정도로 예수님이 저한테 많이 오셨죠. 이게 제 신앙의 역사예요. (양희진)

신앙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한민영은, 한 마음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기법이 그에게 고독과 일상을 통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만나기 이전에도 한민영은 꾸준하게 7, 8년간의 고독의 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일상 속에서 성찰을 도와주는 다양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을 만나게 되고,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기법들을 사용하는 데에 익숙해짐에 따라 점차 자신의 일상과 고독을 통합해가게 되면서, 더 이상 따로 시간을 떼어 산이나 수녀원을 찾는 일이 드물어지게 된다.

근데 아바타 기법에 보면은, 온전히 자기를 잊는 것도 목적도 아니에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생각이 완전 비어지는 그런 연습들이 있는데, 그거를 했을 때에는 대상을 바라보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그 제가 이제 저 연습을 여러 차례 반복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아 이거구나'라고 하는 그게 된 순간에는, 지금도 제가 8년 정도 된다고 했는데도 그 기억이 안 잊어져요. (한민영)

요컨대, 일상과 고독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는 영성의 차원에서 고독을 경험하였던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영성의 차원의 고독에서, 이들은 상황 전체를 바라보는 높은 자아와 절대자의 존재를 신뢰하는데, 이들의 존재가 제보자들에게 일종의 안목과도 같은 형태로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안목은 굳이 고독의 맥락을 구분하여내지 않더라도 일상의 맥락에 속하는 언제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렌즈와도 같다.

2) 일상 속의 고독

일상을 살아가면서 동시에 고독의 맥락을 누리는 이들은 고독이 필요한 순간을 민감하게 잡아낸다. 이러한 순간은 주로 이들에게 감정적인 부대낌으로 처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이러한 부대낌을 미루어놓거나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해결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한민영에게는 이러한 부대낌이 날마다 있다. 순간 순간 예기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에서 그

는 그러한 상황에 압도되기보다, 기도를 통해 자신을 그러한 상황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떼어낸다. 그에게 이러한 패턴은 일상적인 대화와도 같다.

제가 그래요. 날마다 어려운... 여기는 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많겠어요. 기도 하고 화살기도도 해요. 갑자기 민원 같은 게 제기되었다 하면 주님 이거 넘기게 해 주시고 이걸로 인해 상처받지 않게 해 주세요 해주세요 이렇게 화살기도를 툭툭툭 화살처럼 빠르게 하는 기도도 하구요 제가 화를 많이 내고 나면 주님 제가 애한테 화를 냈죠 어떻게 해요. 정말 회개합니다. 제 감정 잘 다스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도 말하고 일상의 대화를 하는 거죠. (양희진)

한민영에게도 이러한 부대낌은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때때로 찾아온다. 그럴 때면, 그는 그러한 부대낌을 그대로 두지 않고, 바로 개인적인 작업에 돌입하는데, 이를 통해 부대낌의 상황에서 떨어져 자신과 상황을 두루 살핀다.

제가 뭐 신이 아닌 이상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좀 힘들어지고, 포용이 잘 안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얼른 제 개인적인 작업하는 시간을 가져요. 잠깐 잠깐이라도. (한민영)

이러한 부대낌의 순간에 찰나적으로 자신의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떨어트려 보는 작업은, 자신이 익숙하게 생각해왔던 논리에 대해서 집착하기를 그치게 한다. 한민영은 부대낌이 느껴질 때, 이러한 부대낌의 원인이 혹시 자신에게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자신의 한 단면을 알게 됨과 동시에, 자기 안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던 논리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게 된다.

우리 그 연습 중에 자기기만 신호라는 연습이 있어요. 남한테 어떤 허물이 보일 때 그때 질문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서 자주 보는 허물이 뭐냐, 그 허물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를 않고 거부한 적 있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한테 질문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은 뻘해요. 그 사람한테도 내가 어떤 허물을 보고 있는 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허물이 나한테 있다는 걸 내가 인정 안 하나? 막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아 내

가,, 나도 그런 허물이 있는데, 나는 안 그렇다고 하면서 저 사람한테 투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불편해하는구나..하면은..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연습인데, 그 뭐라 그럴까, '대상이나 사람을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나 해석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연습을 통해서 훈련이 되는 거거든요? (한민영)

양희진은 때로 노력해도 스스로 정리가 쉽지 않은 지점에서, 자신의 논리를 절대자에게 내어 맡긴다. 이는 내게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절대자의 시각을 택하고자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저는 피정은 정말 그렇다고 생각해요 날마다 숨쉬는.. 어떤 때 저는 그런 기도를 해요. 도저히 정리가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복잡할 때는..주님.. 이렇게 말해요. 주님만 드러나세요. 주님.. 하면서 나를 내보내요. 나야 나가라 주님 들어오세요. 이 호흡만 해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양희진)

이러한 과정에서, 고독의 맥락에 바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큰 힘을 발휘한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해진 일부 제보자들의 경우, 일순간 결심을 통해 마치 생각과 감정들을 다 쏟아놓은 것처럼 잠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오랜 기간 동안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 앞서 언급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생각 쏟아놓기의 과정이 생략되고, 그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내면의 고요함의 상태로 바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는, 쏟아내기를 통해 도달하게 되는 잠잠함의 상태를 이들이 충분히 경험하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심으로 통제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데 고독의 맥락이 필요한 상황일 때 이들이 즉시 새로운 시각으로 사태를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도적으로 복잡한 생각들을 이제 예를 들면 하나님 나의 계획과 생각들과 나의 의지를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 보혈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 안 하겠다고 내가 고백을 하고,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러다 생각들이 또 떠오르면은 또 다시 한 번, 똑같은 기도문을 얘기를 하고, 기다리지. 근데 내가 의도적

으로 고백을 했을 때, 그 말에 힘이 있는 거 같애. 진짜 잠잠해..진짜 잠잠해 지기는 해. (고준희)

이러한 일상 속의 고독은, 일상의 매 순간을 배움의 자리로 만들어 준다. 일상을 고독에 투영하여 볼 때, 이들의 일상엔 또렷하고 생생하게 살아있는 일상으로 다가온다. 한민영은 이러한 생생함이 그저 멍하게 있는 시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시간임을 고백한다. 이러한 고독 속에서, 한민영은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 뿐 아니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또렷하게 지각하게 된다.

근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론 내 안에서 무슨 생각들이 일어나는지도 너무 명확하게 잘 알죠. 어떤 경우는 자기가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는데도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빠져 있잖아요? 누가 이제 말 시키면 그때서야 깜짝 놀라고. 근데 그렇지 않고, 내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올라오는지, 내 바깥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아주 예민하게 아는 거예요. (한민영)

그에게 이러한 경험은 마치, “처음 그 대상을 본 것만 같은 느낌” 이어서, 이전에 학습되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해체되고, 새롭게 그 대상이 인식되는 것 같았다.

정말로,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처음 그 대상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만큼, 아주 그니까 늘 보는 익숙한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여기에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생생하고 선명하고, 그 느낌이 정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어떤 무게감이라든지, 표면의 질감이라든지,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탁 닿는 느낌이 있어요. (한민영)

일상 속에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은, 이들이 갖는 일상적인 만남의 자리조차 풍성한 배움의 자리로 탈바꿈 시킨다. 이러한 배움은, 결국 상대방의 삶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이들은 상대방에게서 끊임없이 자신을 볼 줄 안다.

일상에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연히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한

두세 시간 만나서 이야기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신앙의 고민을 호소하는 분들이 요즘 좀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제가 영감을 얻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결국은 제 모습이잖아요. 나와 남이 다르지 않잖아요.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양희진)

일상 속의 고독이 익숙해졌다고 하더라도, 제보자들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들은 일상 속의 고독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매너리즘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으며, 일상 속의 고독과, 일정 기간 따로 떼어 홀로 있는 시간 사이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양희진은 일상 속의 고독이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이지만,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되기 위해서는 분별된 시간을 꼭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날마다 순간마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떤 부분에선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좀 경계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면 분별된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보구요. (양희진)

이는 짧은 시간 동안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성찰이 그 깊이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짧은 성찰은 우선 감정과 즉시 드러나는 생각들로 작업하는 데에는 용이하지만, 이것으로 괜찮다는 매너리즘에 빠질 경우, 더 깊이 자리하고 있는 원인을 찾아내어 다루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짧게 할 때는 짧게 넘어가는 거예요. 뭔가 임시방편적 기도일 때가 많아요. 지금 할 때는 지금 화가 났으니 화만 안 나겠지 하지만 화를 낸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녜요 그 중에서 제 안에 어떤 부대낌 그리고 제 뜻대로 저 사람을 조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원인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를 구하는 건 길게 해야 할 거는 긴 피정 가서 해야 하는 거죠 (양희진)

이러한 생각은 한민영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삶에 있어서도 짧은 시간의

고독과 충분한 시간의 고독은 균형 잡힌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마스터 코스라든지, 워저드 코스라든지 이렇게 긴 기간, 저 자체가 복습을 하러 가는 시간들이예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은 충분히 그것을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서 작업을 해요. 이게 어디서 비롯됐었고,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면 현상적인 것들을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굉장히 깊숙한 차원에서 작업이 이뤄나니까는 변화의 어떤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나눠서 일을 하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저한테 별로 그렇게 집중을 많이 안 하고, 그런 시간을 따로 갖고 (한민영)

일상 속의 고독은 그 자체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 기간 동안의 깊이 있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평상시의 짧은 작업과 그 기록은 긴 기간의 작업에 밑거름이 된다.

3. 소결

일상의 맥락에 가리어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던 고독의 맥락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점차로 제보자들의 삶에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 때, 고독과 일상의 맥락은 서로 상보적인 관계로 맺어져있는 모습을 보인다. 고독은 제보자들의 삶에 주된 영역인 일상의 방향성을 점검하는 토대와도 같은 역할을 하며, 제보자들이 살아가는 일상은 고독의 맥락에 새로운 소재를 제공한다. 이러한 일상과 고독의 상보적 관계에서, 제보자들은 두 맥락을 일생이라는 방향성에서 영리하게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고독의 맥락은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징검다리와도 같다.

모든 제보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이러한 고독과 일상 사이의 균형

은, 균형의 차원을 넘어서 서서히 통합되어가는 모습이 절반 정도의 제보자의 삶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고독을 일상으로 사는 형태가 아닌, 일상을 고독으로 사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때에 고독은 마치 일상의 어느 단면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일종의 렌즈와 같았다. 이러한 통합에는 영성적 차원에서 고독의 맥락을 경험하였던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영성의 차원에서 독특하게 드러나는 더 높은 차원의 자기와 절대자의 존재가 믿음에 기반하여 존재함에 따라, 상황적 제약을 뛰어넘기에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고독과 일상의 통합은, 제보자들이 매일의 일상을 풍성한 학습의 장면으로 경험하게 하였다.

VI. 요약 및 결론

1. 요약

학습에 관해 논의할 때, 주체와 환경 사이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이해 중 하나였다. 이러한 교육학 논의의 흐름에서 고독의 맥락은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고독은 주체가 만나는 환경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관계망의 영향이 일시정지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며, 자신이 익숙했던 일상의 흐름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맥락이다. 이러한 환경적인 고립에서 초래되는 외로움의 정서를 극복한 홀로 있음의 자각은 개인 차원의 학습에 독특한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고독의 맥락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바를 학습의 관점에서 드러내고자 하였다. 고독의 맥락이 어떻게 한 인간의 삶에 발현되고 그 발현에 따라 어떠한 조건을 형성해 가는가, 고독의 맥락이 형성해낸 조건에서 이들의 내면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과정이 경험되는가, 마지막으로 고독의 맥락이 인간의 삶과 생애 전반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가 주요 질문들이었다.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일곱 명의 체보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일곱 명의 체보자들은 적어도 5년 이상 스스로의 의지로 정기적인 고독의 시간을 가져온 사람들이었으며, 따라서 연구관심에 해당하는 경험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었다. 체보자들은 2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세 명의 여성 체보자와 네 명의 남성 체보자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됨에 따라 이들의 체보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는데, 이러한 자신감은 이들이 이 맥락을 얼마나 자신에게 중요한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했다.

고독의 맥락에서 체보자들이 경험한 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다. 일상의 맥락에서 고독의 맥락으로의 맥락적 전환과 그에 따른 새로

운 조건과의 만남, 고독의 맥락 안에서의 멈춤과 쏟아냄, 성찰과 재구성이 라는 학습 양식의 경험, 고독의 맥락과 일상의 맥락이 통합되어감에 따라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한 학습의 양식의 체화가 그것이다.

제보자들은 일상에서 고독으로의 맥락적 전환을 크게 두 계기를 통하여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이들이 이전에 고독의 맥락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계기를 만나고서야 고독의 맥락에 주목하고 경험 하게 되었다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들은 믿었던 관계에 깊이 실망하거나, 마음을 쏟았던 일에 대한 좌절, 더 이상 삶을 영위해나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삶의 과부하와 같은 극적인 경험을 통해 고독의 맥락을 주목하게 되기도 하였고, 이에 못지않게 고독의 맥락을 이미 살아내고 있는 모델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방법적인 틀과 조우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고독의 맥락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렇게 경험한 고독의 맥락은, 이들에게 세 가지 조건이 작동하는 맥락이었다. 첫째는, 일상의 맥락에서 끊임없이 작동하는 상황적인 자극들의 일시 정지였다. 이들은 고독의 맥락을 택하면서, 이러한 자극들에 일일이 반응하기를 멈춤으로 자극들이 일시 정지된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들었다. 둘째는, 철저히 위기(爲己)적인 목표였다. 이들은 고독의 맥락에서만큼은 사회적인 관계로부터 오는 기대의 부담감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과 자신의 문제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깊은 의지를 보였으며, 고독의 맥락은 이러한 의지에 의해 움직였다. 셋째는,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객관적인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 주제에 대한 물음이다. 이들은 상황적인 자극에 때때로 반응하여 느끼는 부대낌을 통해 자기 본연의, 더 나아가 인간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고독은 이러한 물음들이 수면위로 떠올라있는 맥락이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제보자들은 인식의 차원과 영성의 차원, 감정의 차원에서 고독의 맥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흥미로웠던 것은, 세 차원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과정이 제보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의 구조의 폐기와 새로운 구조의 형성의 과정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적

특징은 의식의 차원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의식의 차원에서 제보자들은 자신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험의 구조가 영켜있다고 느끼는 지점을 만나게 되고, 이때 더 이상의 상황적 자극에 반응하는 자기를 멈추고 영켜있던 경험의 구조를 쏟아내었다. 놀랍게도 영켜있던 구조들은, 언어적인 서술과 같은 형태로 쏟아 내어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과 본질을 묻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나 성찰과 재구성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달한 재구성의 단계는 이전의 경험의 구조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의 구조로써, 상황과 자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허락하였다.

고독의 맥락은 몇몇 제보자들에게는 영성적인 차원에서 경험되기도 하였다. 이 차원에서는 평가와 판단을 중지한 높은 자아와 절대자, 그리고 잠잠해진 내면이 중요하였다. 잠잠해진 내면에는 때때로 이들이 ‘영감’이라고 부른 깨달음이 솟아올랐는데, 이러한 깨달음은 인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이유가 없는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마음의 감동으로 받아들여진 깨달음은 제보자들에게 새로운 구심점이 되어, 기존 경험의 구조를 성찰하고 재구성하는 힘이 되었다. 잠잠한 내면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영성의 차원은 이들이 인식의 차원에서 떠올리지 않은, 무의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경험들을 촉발하는 역할을 하여, 성찰과 재구성의 범위를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하였다.

인식의 차원, 영성적 차원에서 경험되는 고독의 맥락에 있어서 감정의 차원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우선 감정의 차원에서의 변화는 인식의 차원과 영성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쏟아냄과 성찰, 재구성의 전 과정을 이끄는 일종의 신호 기제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제보자들이 일상을 사는 동안 주목하게 되는 부대낌의 느낌, 그리고 쏟아냄의 과정과 함께 경험하는 해소감은 고독의 맥락이 시작되고 마무리되는 데에 있어 일종의 직관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두려움이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과 같은 정서적 문제들 또한 고독의 맥락을 통해 그 감정 뒤에 숨어있는 경험의 구조들을 꺼내어 성찰하고 재구조화하게 됨으로 해결되었다.

고독의 맥락적 조건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학습의 양식, 멈추어 쏘아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찰과 재구조화는 제보자들의 일상과 균형을 이루며 제보자들의 삶에 체화되어갔다. 고독의 맥락이 반복되면서 이들은 점차 굳이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삶에서 고독의 맥락을 누릴 수 있게 되어갔고, 이를 넘어 일부 제보자들은 이들의 일상을 고독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갔다. 이러한 통합은 이들의 매 순간의 삶을 깨어있게 하였고, 풍성한 학습의 장면으로 바꾸어 놓았다.

2. 결론

1) 학습 연구에 있어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의의

지금껏 학습에 관한 논의들에 있어서, 내적 자아와 외부 세계 사이의 교차지점에서 일종의 긴장과 함께 발생하는 새로운 경험(Jarvis, 2006)은 학습의 중요한 시작점으로 설명되어 왔다. 주체와 주체가 경험하는 환경간의 끊임없는 관계맺음은 학습을 논의할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전제조건이었다. 그런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고독의 맥락은 이러한 전제조건을 빗겨나간다. 본 연구에서 고독의 맥락은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끊임없는 관계맺음이 일시 정지된 상태였다.

새로운 경험이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들에게 있어서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고독의 맥락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나 목소리들을 배제하고, 본질적인 질문을 탐구하였는데, 이러한 본질적인 질문들은 결코 객관적인 정답이 나올 수 없는 물음들으로써 결국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답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물음들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들은 이들의 전 생애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물음들이었던 만큼 제보자들에게 있어 절박한 물음이었으며,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

었다.

이러한 외부적 자극의 일시적인 정지 상태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제보자들이 경험한 고독을 구성해내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었다. 이 세 가지 조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셋 중 어느 하나가 빠지게 되면 고독의 맥락이 조성되기도, 유지되기도 힘들었다. 외부적 자극의 일시적 정지 상태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한 목표가 현실화되도록 하며,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이 탐구될 수 있는 안전한 장으로 역할 하였다. 철저히 위기적인 목표는 외적인 자극의 일시 정지 자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다. 쉽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은 외적인 자극의 일시 정지의 동기로 작용하였고, 위기(爲己)적인 목표를 입음으로써 특정 개인이 탐구할 주제로 가깝게 여겨질 수 있게 되었다.

고독의 맥락은 학습에 관한 논의에 있어 주된 전제를 따르는 맥락이 아니지만, 철저히 위기(爲己)적이면서도 본질에 가까운 탐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학습의 맥락이었다. 이는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환경적인 자극이 학습에 있어서 필요충분조건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학습자 안에는 이미 무궁무진하고 풍부한 학습의 소재가 잠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2) 고독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학습의 양식, 폐기학습

학습에서 자유로운 인간은 없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망의 설 새 없는 작동 속에서 나는 끊임없이 학습을 해왔으며, 그 결과로 지금의 내가 있다. 학습의 결과로 형성되어 주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반응의 패턴들은, 여전히 끊임없이 돌아갈 관계망의 영향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경험의 토대가 되며 앞으로의 학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형성되고 굴러가기 시작한 패턴의 굴레는 관계망의 끊임없는 작동과 맞물려 설 새 없이 돌아간다. 슬픈 사실은, 이미 내 안에 학습되어 내장된 패턴과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사이의 관계 속에, 정작 ‘나’는 빠져있기가 쉽다는 사실이다. 학습된 패턴의 진화와 환경의 끊임없는 변화 사이의 자동화에 가까운 관계에서 자아는 소외되어버린다.

고독의 맥락은 이러한 자동화를 일시 정지시킨다. 제보자들은 이러한 일시정지의 틈에서 비로소 자동적으로 주어진 상황에 반응하던 자신의 학습된 패턴을 멈추고, 패턴을 쏟아내는 작업을 통하여 곰곰이 살펴보게 되었다. 내재된 패턴을 형성하고 있던 기존의 경험들을 언어적인 방법으로 쏟아내는 과정에서 제보자들은 다양한 입장에서, 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되며, 이러한 성찰은 자연스럽게 기존의 경험들의 새로운 직조로 이어졌다. 이렇게 새롭게 직조된 경험들은, 제보자들에게 있어서 이전의 패턴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사태를 보는 새로운 안목을 허락하여 주었다.

고독의 맥락에서 제보자들이 경험한 총체적인 과정은 지금의 나를 버리는 ‘폐기학습’과 이에 뒤따르는 새로운 학습(한승희, 2006)의 과정이었다. 고독의 맥락은 제보자들에게 어떠한 판단이나 평가로부터 안전함을 제공해주었는데, 이러한 안전함은 이들이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다. 안전함을 느낄 때에야, 제보자들은 비로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직면할 수 있었으며, 자기 자신의 변화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받아들일게 되었다.

고독의 맥락에서는 학습의 중요한 능력인 성찰 능력이 자신의 생애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작동하였다. 이는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위기(爲己)적인 목표와의 상관속에서 성찰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생애적 차원에서 작동한 성찰의 능력은 제보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패턴에 대한 폐기학습과 새로운 패턴의 학습으로 이어졌다.

3) 매 순간 학습자의 자세로 사는 평생 학습형 인간

성찰은 학습에 있어서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나 인간이 살고 있는 일상

은 수많은 요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적인 맥락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자극이 끊임없이 주어진다. 이러한 일상의 맥락에서 언제나 성찰의 능력을 켜고 살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몇몇 제보자들의 삶은 이러한 불가능해 보이는 모델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일상을 살아가는 때 순간이 고독이라고 했다. 오랜 세월동안 쌓여온 고독의 맥락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들은 일상과 고독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고독을 물리적으로 떼어내어 보내야만 하는 맥락으로 여기지 않고 일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들의 이러한 적용은 일종의 안목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매 순간 변화하는 일상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반응하기를 그치고, 순간적으로 절대자의 안목 혹은 그 순간을 성찰하는 높은 자아의 안목을 투영하여 사태를 바라본 후 반응하였다. 이러한 안목의 형성은 초기에는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끊임없이 일상을 영적인 통찰을 통해 반응하려는 훈련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으로 자리하게 되어갔다.

이러한 안목의 형성에는 영성적 차원에서 고독을 경험하였던 것이 큰 역할을 하였다. 영성적 차원은 믿음에 기반하여 경험하는 맥락으로, 영성적 차원에서 주요한 구성원인 보다 높은 차원에서 성찰하는 자아와 절대자는 사태에 반응하는 또 하나의 안목으로 이들의 삶에 자리를 잡는다. 따라서 이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믿음에 근거하여 사태를 바라보는 렌즈와 함께 있을 수 있었다.

성찰의 안목을 삶의 모든 장면에 투영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은 평생학습적인 인간의 모습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자신이 익숙하게 반응하는 패턴에 대해서 인지하고 볼 수 있는 안목을 일상에 투영하여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삶의 모든 장면은 마치 개념으로 그 대상을 알기 이전의 대상과 같이 생생하게 경험되었다. 무신경하게 지나칠 수 있는 삶의 국면들을 이

러한 안목이 풍성한 학습의 장면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4)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본 연구는 인간이 본연적으로 향수를 느끼는 대상이 되는 고독이 교육학 안에서 주목을 받아오지 못한 데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실지로 고독은 사회학과 심리학적 차원에서 사회 부적응이나 스트레스 경감의 기능을 중심으로, 철학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실존을 경험하는 맥락의 차원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왔다. 그러나 고독의 맥락은 교육학에서 주로 논의하는 학습의 전제조건과 다른 조건을 가진 맥락인 바, 학습 연구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다른 측면을 함의하고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 것이 본 연구의 출발이었다.

본 연구는 고독의 맥락이 가지는 학습의 장면으로써의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한 연구였다. 연구를 통해 밝힌 고독의 맥락은 일상의 맥락과는 다른 새로운 종류의 학습이 가능한 장이었다. 고독의 맥락에서 주체는 지금까지 형성해온 학습된 패턴을 끊임없는 환경의 변화와의 관계를 배제하고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성찰은 결국 기존의 자기가 부정될 수 있는 가능성에 스스로를 여는 것이며, 이러한 솔직함은 현재의 자기를 버리는 폐기학습과 기존의 경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턴을 직조하는 학습으로 이어졌다.

또한 본 연구는 각 개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풍부한 학습의 자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새로운 학습을 추동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미 개개 학습자가 자신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풍부한 경험에 눈을 돌려 이러한 경험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는 지극히 위기(爲己)적인 깨달음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평생학습적 주체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일상을 주어진 대로 분주하게 살아내는 삶이 아니라, 그 일상을 역동적인 학습의 장으로 살아내는 삶은, 고독의 렌즈를 가지고 살 때에 가능하다. 고독의 맥락에서 경험한 학습의 과정은 삶을 살아가는 양식으로

통합되어감에 따라, 성찰의 렌즈를 가지고 자신의 삶의 전반을 학습의 장으로 창조하여낼 수 있는 인간의 한 유형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인간 본연의 맥락인 고독을 학습의 장면으로 설명하여내고, 이러한 고독의 맥락에서 독특하게 일어나는 학습의 양식이 체화되어 삶의 양식으로까지 자리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들을 가진다.

첫째, 연구의 제보자들이 모두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종교적인 맥락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다른 종교적인 배경이나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도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연구의 대상이 명확한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 추상적 개념에 근거한 고독이기 때문에, 제보자들 각각이 고독을 의미화한 내용이 어느 정도의 차이를 담지하고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 진술적인 면담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는데, 고독의 맥락에만 집중하여 면담이 진행되어, 이들 각각의 인생 전체를 배경으로 조망하여 보는 시각이 부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참고 문헌

- 곽영순 (2009). 질적연구: 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 교육과학사.
- 김동규 (2005). 예술가의 자기 목소리-예술가와 양심. 하이데거연구. 11
- 박성희 (2004).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원미사.
- 신승환 (2007). 현대문화에서의 영성론 연구. 존재론연구. 15.
- 안근석 (1987). 고독에 대한 심리적 이해. 학생생활연구, 15.
- 양은아 (2010). 인문학과 평생학습. 교육과학사. pp.169
- 유계식 (2009). 명상과 게슈탈트 상담에서의 알아차림. 명상치료연구. 4.
- 윤일, 조택연 (2010). 마음과 창조성 그리고 행복. 기초조형학연구, 11(2).
- 이기상 (2006). 존재와 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한 존재. 살림.
- 장경근 (2009). 그리스도교 영성 안에 나타난 ‘고독’ 이해.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
- 한승희(2005). 포스트모던 시대의 평생교육학. 파주: 집문당.
- 한승희(2006). 평생교육론. 학지사.
-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Cambridge: Polity
- Brita Nilsson, Unni A. Lindstrom, Dagfinn Naden (2006). Is loneliness a psychological dysfunction? a literary study of the phenomenon of lonelines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20(1).
- Burton-Christie, Douglas. (2006). The work of Loneliness: Solitude, Emptiness, and Compassion. *Anglican Theological Review*, 88 (1)
- Ester, B.(1998). The Call of Solitude. *Psychology Today*, 31(1).
- Feldman, C. (2003). *Silence*. Berkeley, CA: Rodmell Press.
- Fontana, A., and Frey, J.H. (2005). The interview: from neutral

- stance to political involvement. In N.K. Denzin and Lincoln, Y.S.(Eds.), *Handbook of research* (pp. 651–680).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Foti, V.M.(1981). Book review. *History of European ideas*, 1(3).
- Fromm–Reichmann F.(1959) Loneliness, *Psychiatry*, 22.
- Gerald Macqueron(2010). 고독의 심리학. 뮤진트리.
- Gotesky R. (1965). Aloneness, loneliness, solitude. In *An Invitation to Phenomenology* (Edie JM ed.) Quadrangle Books, Chigago, IL.
- Greben SE (1984). The re–establishment of trust through psychotherapy. *Can J Psychother* 29, pp. 350–354
- Hattori T, Ogasawary Y (1995). Suicide and suicide attempts in general hospital psychiatry: clinical and statistical study. *Psychiatry Clin Neurosci* 49, pp. 43–48.
- Jarvis, P. (1992). *Paradoxes of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Jarvis, P. (2006). *Towards a Comprehensive Theory of Human Learning*. Routledge.
- Larson, R. (1990). The Solitary Side of Life: An Examination of the Time People Spend Alone from Childhood to Old Age. *Developmental Review*, 10, pp.155–183.
- Larson, R., & Lee, M. (1996). The Capacity to Be Alone as a Stress Buffe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36(1), pp.5–16.
- Lasgaard, M., Goossens, L., Elklit, A.(2011). Loneliness, Depressive Symptomatology, and Suicide Ideation in Adolescence: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Analys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9, pp. 137–150.
- Lebret, S., Perret–Vaille, E., Mulliez, A., Gerbaud, L., & Jalenques, I.

- (2006). Elderly suicide attempters: characteristics and outcom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1 (11).
- Maarten J.J. Kunst & Marja J.H. van Bon-Martens (2011). Examining the Link Between Domestic Violence Victimization and Loneliness in a Dutch Community Sample: A Comparison Between Victims and Nonvictims by Type D Personality. *Journal of Family Violence*. 26, pp. 403-410.
- Merton. T. (2003). *New seeds of contemplation*. Boston: Shambhala Press.
- Mijuskovic BL.(1979). *Loneliness in Philosophy, Psychology and Literature*. Van Gorcum, Assen, The Netherlands.
- N.A. Christakis, and J.H. Fowler (2009). *Connected*. Brockman, Inc.
- Rubenstein, C., M., & Shaver, P. (1982). The experience of loneliness. In L.A.
- Olmstead, R. E., Guy, S. M., O' Malley, P.M., & Bentler, P.M.(1991). Longitudinal asse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fatalism, loneliness, and substance abuse.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6, pp. 749-770.
- Sandblom, P. (1997). *Creativity and Disease*. Marion Boyars Publishers.
- (역서: Sandblom, P. (2003). 창조성과 고통. 아트북스.)
- Storr, A. (1988). *Solitude: A return to the self*. New York: Free Press.
- Suedfeld, P. (1974). Social isolation: A case for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e Canadian Psychologist*, 1, pp. 1-15.
- Seudfeld, P. (1982). Aloneness as a healing experience. In L. Peplau& D. Perl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 current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p. 254–267). New York: Wiley–Interscience.
- Slater, P.(1970). *The pursuit of loneliness*. Boston: Beacon Press.
- Taylor, Shelley E., Peplau, Letitia Anne, Sears, David O. (1997). *Social Psychology*. Prentice–Hall, Inc.
- Peplau, L.A., & Perlman, D. (1982).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Wiley–Interscience.
- Weiss, R. S. (1973). *Loneliness: The experience of emotional and social isolation*. Cambridge, MA: MIT Press.
- (역서: Weiss, Robert 저 김진홍 역 (1977). *고독의 사회학*. 서울: 전예원.)
- Yalom ID. (1998). *Eksistentiel psykoterapi (Existential Psychotherapy)*. Hanz Reitzels Forlag, Kobenhavn.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Abstract

Learning Experience in the Context of Solitude

Lee, Jeong-Hee

Lifelong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ontext of solitude, which is a natural part of human's life, is a separated context from the agent's social network and its effect, and also from his/her everyday life. Recognizing the status of being alone, with the loneliness having been dealt with, stops the continuous relationship between self and his/her environment which runs automatically. Here can self be reflected on finally.

This study was to look into experiences which take place in the context of solitude. For this, three research questions had been asked; How does the context of solitude sprout in interviewee's life and what conditions does the context of solitude have? How does interviewee's inner process go on in this context? How does the inner process experienced in the context of solitude take place in interviewee's whole life? To reach answers for these three questions, this study examined stories of seven people who have history of voluntary solitude at least for five years.

Interviewees' experience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parts; contextual switch from daily life to solitude which had contextual conditions, experience of the learning process composed

of 'stopping and pouring out, reflecting on and reconstructing,' and acquisition of the learning process as their lifestyle.

Interviewees had mentioned two occasions which caused contextural change into solitude; one was extremely hard moment in life as great disappointment on relationship, deep depression on work, and too much overburdened life, and the other was encountering a model of solitude. The solitude they encountered had been composed of three conditions; a pause of ever-continuing situational stimulus which is usual in every life context, a purpose throughly focused on interviewee's own self, and a curiosity towards questions which have no objective answer.

Interviewees experienced solitude in three dimensions, which were cognitional, spiritual, and emotional. Interestingly enough, all three dimensions seemed to be a process of unlearning and learning. In cognitional dimension, interviewees unlearned their learned patterns and constructed new patterns, through pouring out tangled structure of experiences, changing their standpoints, and asking what was essential. In spiritual dimension, the inspiration which arose in calmness acted as a key for reflection and reconstruction of the structure of experiences. In emotional dimension, emotion played a leading role for the process of previously mentioned two dimensions, while also being a subject to be reflected and restructured.

All the processes experienced in the context of solitude gradually became a kind of lifestyle for four interviewees, show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on between solitude and daily life. Solitude became a critical eye which can be carried in all aspects of everyday life, changing surroundings into sources and chances

for learning.

This study has revealed three meaningful findings. First, the possibility of solitude as a context of learning has been revealed, which fits well for exploring self and philosophical questions. Second, possible process for unlearning which is necessary for new learning has been revealed. Third, the existence of learning ability which can turn every aspect of daily life into source for learning and the embodied form of this ability as a life style has been revealed through this study.

**keywords : solitude, being alone, lifelong learning, unlearning,
reflection, learning ability**

Student Number : 2010-21440